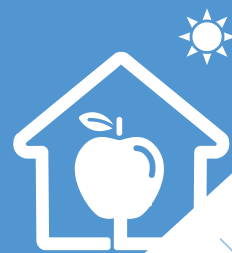


2022 여름

농업·농촌경제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쌀 소비 실태와 소비량 전망
- 2022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양지아 jigeumaa@krei.re.kr, 서동주 tjsuh@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3
4. 농축산물 수출입	25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1
2. 엽근채소	35
3. 양념채소	41
4. 과일	50
5. 과채	57
6. 축산	65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 1. 조사 개요 73
-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75

특별주제

- 쌀 소비 실태와 소비량 전망 89
- 2022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111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22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수출 등이 감소하였지만, 민간소비, 정부소비 등이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함.
- 2022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83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163만 명으로 나타남.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5% 감소함. 2022년 6월 소매판매는 할인점 매출액·카드 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승용차 판매감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107.5로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6%, 3.5% 상승하였으며,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함.
- 2022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30.5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34.7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함.
- 2022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각각 전월 대비 0.8%, 0.7% 증가하였음. 2022년 6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6월 하순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부각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 2022년 2/4분기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은 전기 대비 상승하였지만, 원/100엔, 원/유로 환율은 전기보다 하락함.
- 2022년 1/4분기는 중국과 유로존의 경제는 각각 4.8%, 0.6% 성장하였지만, 미국과 일본 경제는 각각 1.6%, 0.1% 역성장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22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전기 대비 6.4% 감소함.
- 2022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전기 대비 2.9%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2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전기 대비 3.8%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상승함.
 - 노무비, 경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22.6% 상승하였지만,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6.3% 하락함.
- 2022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4.9%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3.5% 상승하였기 때문임.
- 2022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함.
- 2022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2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2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102억 5,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쌀 소비 실태와 소비량 전망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쌀 산업은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 감소가 커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됨. 이로 인해 쌀값 급등락이 빈번히 발생하여 쌀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량 감축은 자칫 쌀 생산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손실 또한 크므로 소비량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적정 생산기반 유지 정책이 필요함.
-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급균형을 이루는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산업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급격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쌀 소비량이 향후 지속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2015년 이후의 쌀 소비량 감소 폭은 연평균 1.7%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이 재설정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최근 5년 쌀 소비량 감소율이 2.1%로 최근 10년 감소율(2.4%)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분석되어 쌀 소비량 감소 추이는 최근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전망치는 2030년 45.6~53.2(평균 49.6)kg으로 2020년대 연평균 감소율은 2010년대 감소율보다 다소 완화된 1.5% 정도로 전망되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의 결과는 쌀 소비량 감소는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지속된다는 것으로 2021년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오히려 0.8%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1.4~1.7%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의 현재의 생산량 추이가 지속된다면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2. 2022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 (전망모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08년 개발한 이후 지속 운영하고 있는 KREI-KASMO를 이용
 - 국내 농업부문에 한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설정
 - 재배업 65개, 축산업 9개 등 총 74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자와 배추, 무는 작형별로, 파와 낙농품은 품목별로 세분
- (거시지표) 2022~31년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이용함
- (재배업 생산 전망) 2022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0% 줄어든 153.1만 ha,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8% 줄어든 160.1만 ha로 전망
 - 2022년 경지면적 감소폭 보다 농가인구의 감소폭이 커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7% 증가할 전망이며, 경지이용률은 0.2p% 증가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 농촌의 고령화, 농지 전용 수요 증가 등으로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재배면적은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0.8% 감소한 160.1만 ha로 전망
 - 기타작물을 제외한 부류별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축산업 생산 전망) 2022년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임암소 및 모든 마릿수의 증가로,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5.4백만 마리로 전망
 - 2020년 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피해 복구로 오리와 산란계가 각각 31.4%, 7.3% 증가하여,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75.2백만 마리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 육류 및 계란 소비가 증가하며, 젓소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사육마릿수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농식품 소비 동향) 2000년대부터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대표적인 7대 곡물과 6대 과일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와 수입과일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

- 중장기적으로 곡물, 채소,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육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
- (농업생산액) 2022년 농업생산액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배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축산업은 3.0% 증가할 전망
- 곡물류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할 전망
- 채소류는 마늘, 양파, 건고추 등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실류는 배, 포도 등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우의 생산량 증가로 한육우 가격이 하락하지만, 생산비 증가에 따른 가금육 가격 상승으로 축산업 전체 생산액은 증가할 전망
- (부가가치) 2022년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중간재비가 상승하여,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7조 6,850억 원 전망
- 축산업 생산액이 증가하나 사료비 등의 중간재비 상승 폭이 커,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9.6% 감소한 5조 5,760억 원 전망
- (농업교역조건) 2022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5.3% 상승하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이 1.2%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교역조건지수는 12.2% 악화될 전망
- 2022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국제 유가 상승, 국제곡물 가격 상승, 원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업 용품 구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 202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청과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
- 농업구입가격지수 연평균 상승률이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보다 커 농업교역조건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9% 수준 악화될 전망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2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함. 수출 등이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 정부소비 등이 증가함.
- 2022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1.0% 감소함.

부문별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p				2022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1.3	-3.0	2.3	1.2	1.7	0.8	0.2	1.3	0.6	0.7(2.9)
민간소비	-6.6	1.1	0.3	-1.1	1.2	3.3	0.0	1.5	-0.5	3.0(4.0)
정부소비	1.7	0.7	0.3	-0.2	1.6	3.5	1.4	1.5	0.0	1.1(4.1)
건설투자	1.4	-2.7	-2.3	2.4	0.1	-1.5	-2.0	2.0	-3.9	0.6(-3.3)
설비투자	-0.4	1.5	5.9	-0.2	6.8	0.9	-3.0	-0.2	-3.9	-1.0(-7.9)
총 수 출	-0.7	-14.5	15.7	3.2	4.1	-0.7	1.1	3.2	3.6	-3.1(4.7)
총 수 입	-2.6	-5.4	6.2	-0.2	5.6	2.7	-0.3	3.5	-0.6	-0.8(1.7)

주 1.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준호 연구원(kjh92@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2.07.26.)」,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6.17., 2022.07.20.)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소비, 민간소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수출 등이 감소함.
 - 2022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및 신발 등의 준내구재와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1% 증가함.
 - 2022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6% 증가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 1.0% 감소함.
 - 수출은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3.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0.8% 감소함.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등이 증가함.
 -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6.4% 감소함.
 - 제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어 1.8%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0				2021 ^p				2022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0.3	-6.3	-0.6	3.4	6.9	-9.8	8.2	0.7	1.6	-6.4 (3.4)
제조업	-0.7	-8.8	7.6	2.5	3.9	-0.4	-0.3	0.7	3.3	-1.1 (2.5)
서비스업	-2.3	-1.1	1.2	0.7	0.9	1.7	0.6	1.9	0.0	1.8 (4.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	-2.7	1.4	0.0	1.0	2.1	-0.7	4.5	0.1	2.2 (6.0)
(운수업)	-12.2	-11.5	3.8	-0.9	3.8	4.2	-1.7	4.4	-1.1	9.8 (11.4)
(금융 및 보험업)	2.8	3.0	2.3	2.3	1.7	-1.3	3.5	1.9	0.3	-3.3 (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1.7	-2.2	2.7	0.7	0.1	2.1	3.4	1.6	1.3	0.5 (6.8)
(문화 및 기타)	-13.8	-9.8	4.5	-1.6	1.4	2.9	0.2	3.2	-0.1	9.0 (12.8)

주 1.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22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약 2,923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 2022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약 2,835만 명으로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6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9만 9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5만 3천명, 일용직 근로자는 7만 9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 1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3천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0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28,012	28,310	27,748	28,596	28,451	28,445	28,360	29,227	2.2
(경제활동참가율)	62.5	62.8	61.7	63.5	63.1	63.0	62.7	64.6	1.1
취업자	26,904	27,273	26,369	27,467	27,645	27,611	27,369	28,347	3.2
• 농림어업	1,445	1,458	1,253	1,537	1,572	1,472	1,310	1,630	6.1
• 광공업	4,389	4,380	4,423	4,387	4,322	4,387	4,489	4,518	3.0
(제조업)	4,376	4,368	4,410	4,375	4,310	4,376	4,476	4,507	3.0
• 건설업	2,016	2,090	1,995	2,107	2,134	2,125	2,071	2,164	2.7
• 도소매·음식숙박업	5,647	5,451	5,415	5,506	5,461	5,421	5,424	5,486	-0.4
실업자	1,108	1,037	1,380	1,129	807	833	990	880	-22.1
실업률(계절조정)	4.0	3.7	4.3	3.7	3.1	3.4	3.0	2.8	-0.9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6월 고용동향(2022.07.13.)」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6.17., 2022.07.20.)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5% 감소함.
- 2022년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는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Δ 1.2%), 비내구재(Δ 0.3%)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함.
- 2022년 6월 소매판매는 할인점 매출액·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승용차 판매감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20	2021 ^P					2022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P	5월 ^P
민 간 소 비	-4.8	3.7	1.2	3.3	0.0	1.5	-0.5		
소 매 판 매	-0.2	5.9	1.7	2.2	0.8	1.1	-1.1	-0.2	-0.1
(내 구 재) ¹	11.1	5.5	0.9	0.4	-2.1	-0.2	-1.0	0.5	1.2
(준내구재) ²	-12.4	12.8	2.7	7.7	2.7	2.7	-4.6	7.7	-1.2
(비내구재) ³	-0.5	3.7	1.8	1.4	1.6	1.1	0.5	-3.6	-0.3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1년, 2022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22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91만 원으로 전기 대비 7.0%,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음.
 - 재산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6% 10.9% 8.3% 증가하여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음.
 -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6.17., 2022.07.20)」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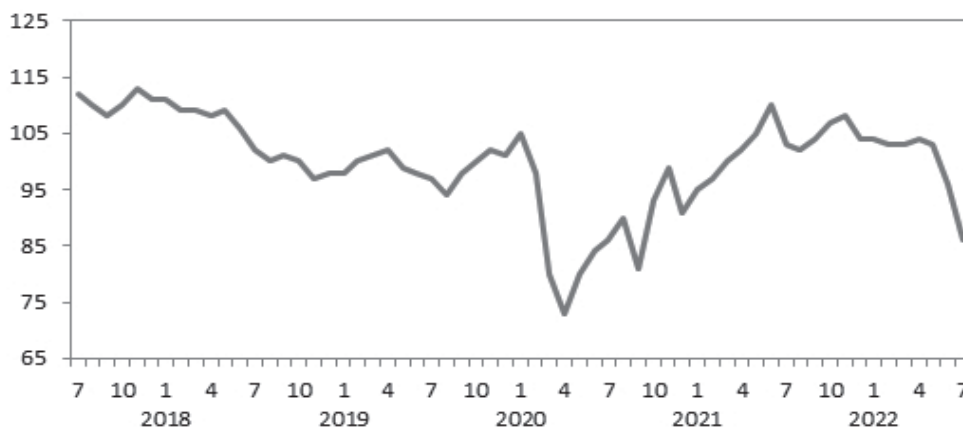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득	3.7	4.8	1.6	1.8	-0.7	-1.4	7.6	7.0	11.1
경상소득	2.4	4.3	1.2	1.2	0.1	-1.5	7.7	6.9	11.5
(근로소득)	1.8	-5.3	-1.1	-0.5	-3.5	4.9	5.7	5.7	12.6
(사업소득)	2.2	-4.6	-1.0	-5.1	1.6	5.5	3.3	11.9	10.9
(재산소득)	22.4	-11.7	18.5	7.4	-12.7	58.1	-27.5	8.9	-6.7
(이전소득)	4.7	80.8	17.1	25.1	17.5	-31.4	25.3	5.4	8.3
비경상소득	79.8	44.4	33.3	49.1	-30.0	6.3	-1.1	10.9	-7.8

자료: 통계청

- 2022년 6월 소비심리지수⁵⁾는 96으로 전월 대비 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3월 103 → 4월 104 → 5월 103 → 6월 96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22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07.5로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6%, 3.5%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구분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2.5 (2.5)	101.5 (1.4)	102.0 (2.5)	102.7 (2.5)	103.8 (3.5)	105.4 (3.8)	107.5 (5.4)
상 품	103.1 (3.1)	101.9 (1.6)	102.4 (3.3)	103.2 (3.1)	105.0 (4.4)	106.7 (4.7)	110.1 (7.6)
농축수산물	108.7 (8.7)	108.4 (13.3)	107.7 (11.3)	109.3 (5.6)	109.6 (5.2)	111.3 (2.7)	111.6 (3.6)
공업 제품	102.3 (2.3)	100.7 (-0.4)	101.5 (2.2)	102.6 (2.8)	104.3 (4.6)	106.1 (5.4)	110.1 (8.5)
전기·수도·가스	97.9 (-2.1)	98.2 (-5.0)	98.2 (-4.8)	94.5 (0.3)	100.7 (1.4)	101.1 (2.9)	106.7 (8.7)
서 비 스	102.0 (2.0)	101.1 (1.3)	101.7 (1.8)	102.3 (2.0)	102.7 (2.8)	104.2 (3.0)	105.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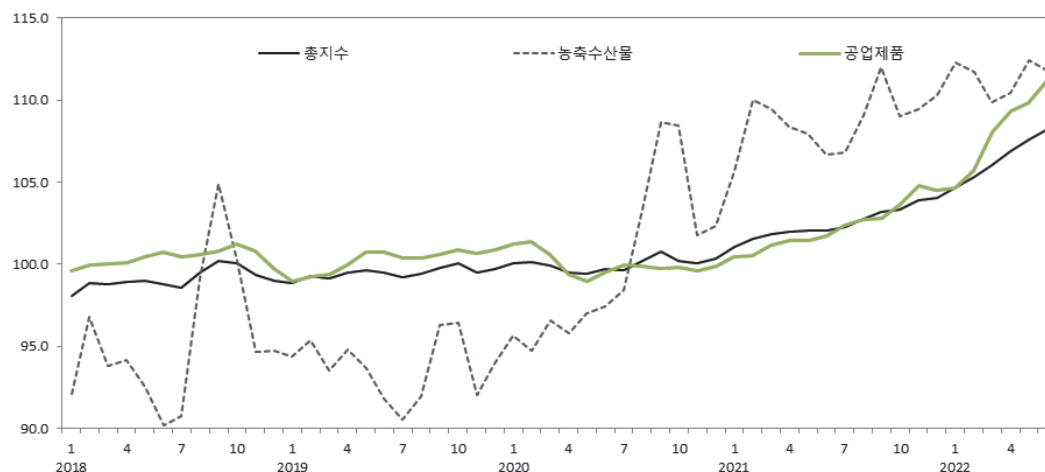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2년 6월 상품과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0.8%, 0.4%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0.6%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1.2% 상승하였으며, 전기·수도·가스는 전월 대비 변동 없음.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22.07.05.)」, 한국은행 「2022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2022.07.22.)」, 「2022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22.07.1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집세, 공공서비스는 각각 전월 대비 0.1%씩 상승하였으며,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7% 상승함.
- 2022년 6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교통,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기타 상품·서비스, 오락·문화, 교육,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의 상승하였고, 의류·신발, 주류·담배, 통신은 변동 없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는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20년=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0.2% 상승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실은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하였지만, 곡물, 채소, 기타농산물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0.1%, 6.9% 하락하였음.
 -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1.9로 전년 동기 대비 9.9%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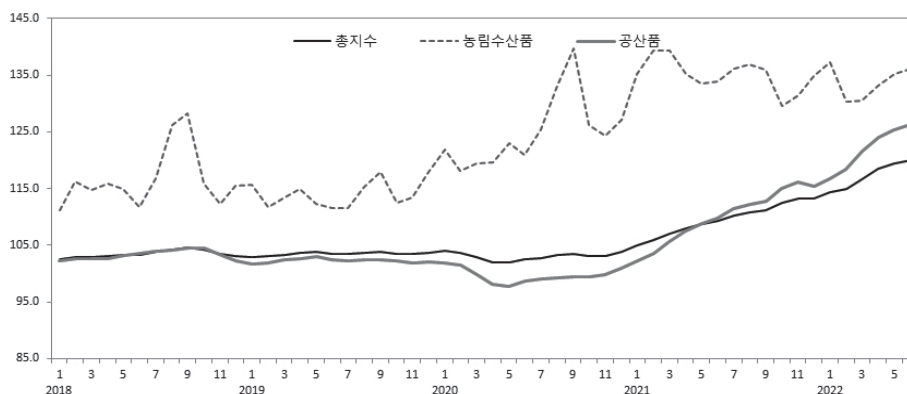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구분	2021					2022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8.7	108.4	107.7	109.3	109.6	111.3	111.6	3.6	0.2
농산물	108.3	112.0	107.3	107.4	106.7	111.3	107.1	-0.2	-3.8
곡물	109.2	109.2	110.0	110.2	107.3	103.6	99.8	-9.2	-3.7
채소	104.3	113.8	99.5	101.0	102.8	107.2	99.4	-0.1	-7.3
과실	111.3	110.4	112.5	111.8	110.2	120.1	119.4	6.1	-0.6
기타농산물	113.0	115.8	115.4	112.0	108.8	110.2	107.4	-6.9	-2.6
축산물	112.7	105.4	111.0	116.5	117.8	115.2	121.9	9.9	5.8
수산물	101.4	102.2	101.8	100.2	101.6	102.7	104.4	2.6	1.6

자료: 통계청

- 2022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19.4로 전년 동기 대비 9.9% 상승하였음.
 - 2022년 6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7%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함.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 가스, 및 증기가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30.5로 전기 대비 8.9%, 전년 동기 대비 23.0% 상승함.
- 2022년 6월 수출물가지수는 132.8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1%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10.4% 상승함.
- 2022년 2/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4.7로 전기 대비 3.2%,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함. 6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4.4로 전월 대비 1.2% 하락함.
- 2022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30.5로 전기 대비 8.9%, 전년 동기 대비 23.1% 상승하였으며,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32.8로 전월 대비 1.2%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108.3 (14.3)	98.3 (1.5)	106.1 (12.3)	113.0 (18.9)	115.7 (25.0)	119.9 (22.0)	130.5 (23.0)	131.3 (23.4)	132.8 (23.7)
농림수산물	119.0 (4.3)	108.7 (-6.8)	112.9 (-1.9)	127.3 (11.2)	127.0 (15.3)	130.5 (20.0)	134.7 (19.3)	136.0 (20.5)	134.4 (16.6)
농 산 물	100.9 (-11.7)	105.5 (-8.6)	101.9 (-13.8)	108.4 (-5.7)	87.7 (-19)	93.0 (-11.9)	104.5 (2.6)	105.3 (3.2)	105.9 (4.0)
공 산 품	108.2 (14.3)	98.3 (1.6)	106.1 (12.3)	112.9 (18.9)	115.7 (25.0)	119.9 (22.0)	130.5 (23.1)	131.3 (23.5)	132.8 (23.7)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2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52.4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전기 대비 8.7% 상승함.
- 2022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154.8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광산품이 올라 전월 대비 0.5%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19.9% 상승함.
 - 2022년 6월 기준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3.1% 상승하였으며,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1.5% 하락하였음. 자본재 및 소비재의 경우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 및 보합함.
- 2022년 2/4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44.6으로 전기 대비 9.1%, 전년 동기 대비 26.8% 상승하였으며,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45.4로 전월 대비 1.0% 하락함.
- 2022년 2/4분기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30.5로 전기 대비 4.6%, 전년 동기 대비 20.3% 상승하였으며, 6월 공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30.3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117.5 (17.6)	105.9 (0.8)	112.8 (14.6)	122.0 (22.8)	129.2 (33.6)	140.2 (32.4)	152.4 (35.2)	154.0 (36.5)	154.8 (33.6)
농림수산물	116.6 (13.5)	106.1 (2.1)	114.0 (9.8)	120.9 (18.3)	125.4 (24.4)	132.5 (24.8)	144.6 (26.8)	146.9 (27.3)	145.4 (26.7)
농 산 물	123.6 (23.4)	110.4 (11.4)	118.1 (19.5)	128.5 (28.2)	137.5 (34.0)	149.4 (35.4)	163.5 (38.4)	167.1 (39.3)	163.9 (37.8)
공 산 품	111.5 (9.5)	104.2 (0.4)	108.5 (6.1)	114.6 (12.1)	118.9 (20.1)	124.7 (19.7)	130.5 (20.3)	131.7 (21.1)	130.3 (18.8)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22년 5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5% 증가)함.
- 2022년 5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8%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요구불예금, 금융채 등이 증가한 반면, MMF, 수시입출식적축성예금 등이 감소함.
- 2022년 5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1									2022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 ¹⁾	24.2	22.3	21.3	20.5	20.0	19.7	18.0	17.6	15.6	14.3	11.6	11.3	9.5	8.7
M2 ²⁾	11.4	11.0	10.9	11.4	12.5	12.8	12.4	12.9	13.2	12.7	11.8	10.8	9.4	9.3
Lf ³⁾	9.5	9.2	9.4	9.9	10.4	10.6	10.2	10.6	10.7	10.6	9.9	9.1	8.0	8.1
본원통화 ⁴⁾	17.5	15.7	16.4	15.8	15.2	14.7	16.1	14.9	15.0	15.6	11.9	11.5	14.0	12.4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22년 6월 국고채(3년) 금리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6월 하순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부각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돼 전월대비 0.5%p 증가한 3.5% 임.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2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2.07.12.)」과 「2022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2022.07.12.)」, 「2022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2.07.12.)」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코스피는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 경기둔화 우려 등에 수급요인이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1					2022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1.4	1.5	1.8	2.0	1.8	2.1	2.3	2.4	2.9	3.0	3.5
회사채 ¹	1.8	2.0	2.3	2.5	2.4	2.6	2.9	3.0	3.6	3.8	4.2
CD유통수익률 (91일)	0.8	1.0	1.1	1.2	1.3	1.4	1.5	1.5	1.6	1.8	2.0
콜금리 ²	0.6	0.8	0.7	0.8	1.0	1.2	1.2	1.2	1.3	1.5	1.7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2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4.5% 상승한 1,260원임.
 - 2022년 6월 원/달러 환율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자금 환전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함.
- 2022년 2/4분기 원/100엔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각각 972원, 1,342원으로 전기 대비 6.2%, 0.8% 하락하였으며, 원/위안 환율은 190원으로 전기 대비 0.4% 상승함.
 - 2022년 6월 일본 엔화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유로화는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임.
 - 신흥국 통화는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주요 원자재 수출국 통화가 약세를 보임.
- 2022년 6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상승함.

6. 세계경제⁸⁾

- 미국 경제는 양호한 고용 흐름 속에 소매판매가 개선되었으나,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소비심리 약화가 지속됨.
- 중국 경제는 봉쇄조치로 인한 생산소비 등 실물지표 전반이 부진하며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둔화됨.
- 일본 경제는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인해 자동차-배터리를 중심으로 5월 산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업 심리도 하락세가 지속됨.
- 유로존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물가상승률이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제조업·서비스업 심리도 모두 악화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6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3.4	5.7	6.3	6.7	2.3	6.9	-1.6	-	-	-
	산업생산(전기비)	-7.0	4.9	0.8	1.6	0.9	1.2	1.2	0.8	0.1	-0.2
	소매판매(전기비)	0.7	19.6	7.6	6.5	0.0	2.3	3.3	0.7	-0.1	1.0
	실업률(계절조정)	8.1	5.4	6.2	5.9	5.1	4.2	3.8	3.6	3.6	3.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4.7	1.9	4.8	5.3	6.7	8.0	8.3	8.6	9.1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2.2	8.1	18.3	7.9	4.9	4.0	4.8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8	9.6	24.5	9.0	4.9	3.9	6.5	-2.9	0.7	3.9
	소매판매(전년동기비)	-3.9	12.5	33.9	14.1	5.1	3.5	3.3	-11.1	-6.7	3.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5	0.9	0.0	1.1	0.8	1.8	0.8	2.1	2.1	2.5
일본	실질GDP(전기비)	-4.5	1.7	-0.4	0.6	-0.8	1.0	-0.1	-	-	-
	산업생산(전기비)	-10.4	5.6	2.6	0.2	-1.9	0.2	0.8	-1.5	-7.5	-
	소매판매(전기비)	-3.2	1.9	-0.2	-0.8	0.5	1.5	-0.9	1.0	0.7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5	-0.8	-0.2	0.5	0.9	2.5	2.5	-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6.3	5.4	-0.1	2.2	2.3	0.2	0.6	-	-	-
	산업생산(전기비)	-7.6	8.0	1.3	0.1	-1.2	0.2	0.8	0.5	0.8	-
	소매판매(전기비)	-0.7	5.0	-1.4	3.9	1.2	0.5	-0.4	-1.4	0.2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2.6	1.1	1.8	2.8	4.6	6.1	7.4	8.1	8.6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6.17., 2022.07.20)」을 참고하여 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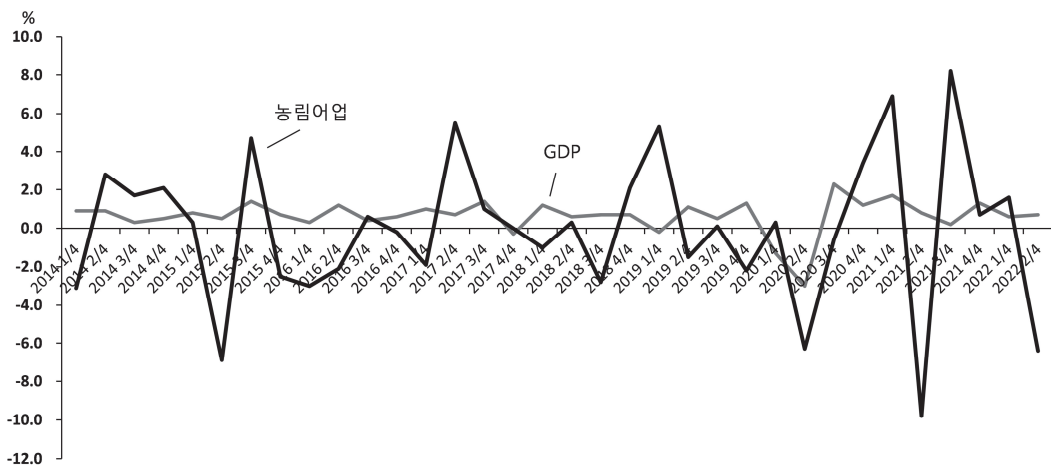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2년 2/4분기 7조 9,0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지만, 전기 대비 6.4% 감소함.
 - 2022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91조 8,7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전기 대비 0.7%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2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3.6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전기 대비 2.9%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1	2021	2022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7.0	128.7	133.7	130.0	127.3	123.6	-4.9	-2.9
곡물	200.1	127.5	138.1	144.9	141.4	136.3	120.7	-14.6	-11.4
-미곡	146.0	129.0	139.0	146.1	139.6	137.2	112.4	-19.5	-18.1
-맥류	8.7	104.7	87.8	60.3	87.2	116.2	81.3	-6.8	-30.0
-두류/잡곡	27.5	137.1	164.0	170.4	197.1	152.0	150.4	-23.7	-1.1
-서류	17.9	110.9	115.8	136.5	96.8	115.1	161.4	66.7	40.2
청과물	314.0	133.6	141.0	155.7	140.3	142.0	136.0	-3.1	-4.2
-채소	196.1	118.6	122.5	160.0	101.0	133.8	120.0	18.8	-10.3
-과수	117.9	158.5	171.9	148.4	205.6	155.8	162.6	-20.9	4.4
축산물	378.3	101.8	116.8	110.7	119.8	108.6	115.0	-4.0	5.9
-가축	240.7	105.5	116.3	106.6	120.2	107.6	114.0	-5.2	5.9
-기타	137.6	95.3	117.6	117.9	119.1	110.3	116.9	-1.8	6.0
기타농산물	107.6	102.2	117.5	129.9	114.4	133.6	123.2	7.7	-7.8
-특용작물	64.7	97.5	115.4	123.8	113.0	127.2	120.2	6.4	-5.5
-화훼	39.3	109.6	122.4	142.5	118.1	145.9	129.0	9.2	-11.6
-부산물	3.6	106.0	102.0	100.8	100.8	113.2	113.2	12.3	0.0

자료: 통계청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7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전기 대비 11.4% 하락함.
 - 미곡과 멥쌀, 찹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5%, 16.4%, 56.5% 하락함.
 - 맥류의 경우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하락하였으며, 쌀보리와 맥주보리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보리쌀은 19.1% 하락함.
 - 옥수수, 콩, 팥, 김장콩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0%, 7.5%, 26.6%, 34.7% 하락하여 두류/잡곡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7% 하락함.
 - 고구마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3% 하락하였지만, 감자의 경우 81.1% 상승하여 서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66.7% 상승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0으로 부류별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8.8%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10.3% 하락함.
 - 엽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시금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 하락하였지만, 배추, 양배추, 상추, 미나리, 부추, 깻잎은 각각 35.8%, 93.9%, 6.3%, 10.1%, 40.0%, 32.3%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2% 상승함.
 - 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무, 당근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0%, 19.3%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함.
 - 파, 생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9%, 31.1% 하락하였지만, 건고추, 마늘, 양파, 풋고추의 경우 각각 80.4%, 69.8%, 2.4%, 2.3% 상승하여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0% 상승함.
 - 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5.1%, 0.7% 하락하였지만 그 외 품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박, 메론 딸기의 경우 각각 21.5%, 18.1%, 12.1% 상승하여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6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하락하였지만, 전기 대비 4.4% 상승함.
 - 사과, 배, 감귤, 자두, 매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32.3%, 17.7%, 50.3%, 12.9% 하락함.
 - 복숭아, 포도, 단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11.0%, 43.0% 상승하였으며, 전기 대비 각각 1.1%, 33.1%, 6.4% 상승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하락하였지만, 전기 대비 5.9% 상승함.
 - 가축의 경우 성돈, 자돈, 육계, 오리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1%, 20.4%, 62.3%, 3.0% 상승하였지만, 한우(암, 수), 육우, 한우송아지(암, 수), 육우송아지, 젓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22.9%, 10.5%, 47.5%, 11.4%, 41.7%, 3.2% 하락하여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함.
 - 기타축산물의 경우 계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하였지만, 우유, 벌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6.7% 상승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2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4.8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전기 대비 3.8%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143.2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전기 대비 4.1% 상승함.
 -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149.4%, 7.9%, 20.5%, 40.8% 상승함.

- 노무비, 경비 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52.3, 130.4로 전년 동기 대비 13.4%, 22.6% 상승하였지만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111.9로 전년 동기 대비 6.3%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2년 2/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42.6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1	2021	2022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6.1	111.1	108.1	110.0	120.2	124.8	13.5	3.8
가계용품	484.8	106.1	108.9	108.0	108.4	111.8	113.7	4.9	1.7
재료비	250.6	101.8	110.0	103.9	107.0	137.5	143.2	33.8	4.1
-종자종묘	27.5	115.9	116.1	113.4	115.7	125.1	127.8	10.5	2.2
-비료비	39.0	77.9	83.7	78.6	78.6	196.0	196.0	149.4	0.0
-농약비	29.3	118.9	120.8	120.8	120.8	130.4	130.4	7.9	0.0
-사료비	136.0	102.1	113.6	105.5	111.0	123.8	133.8	20.5	8.1
-영농자재비	18.7	102.6	112.8	104.3	102.3	144.0	144.0	40.8	0.0
노무비	45.0	124.2	135.3	127.7	134.3	141.4	152.3	13.4	7.7
경비	129.0	103.3	107.5	103.1	106.4	117.1	130.4	22.6	11.4
-영농광열비	32.6	87.1	108.6	92.0	104.1	142.7	193.0	85.4	35.2
-임차료	40.5	112.4	114.5	114.1	114.4	114.6	116.4	1.7	1.6
-농작업위탁비	42.5	108.5	103.4	103.1	103.6	103.3	103.3	-0.3	0.0
-판매자재비	13.3	98.0	96.5	96.5	96.5	106.1	106.1	9.9	0.0
자산구입비	90.6	113.2	118.6	118.1	119.4	111.0	111.9	-6.3	0.8
-기계구입	58.9	104.3	104.5	104.2	104.0	105.4	104.8	0.8	-0.6
-가축구입비	31.7	129.6	144.9	143.8	148.1	121.4	125.2	-15.5	3.1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2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하락하였으며, 전기 보다는 6.5%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5%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1	2021	2022	2022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33.7	130.0	127.3	123.6	-4.9	-2.9
농가구입가격(B)	108.1	110.0	120.2	124.8	13.5	3.8
농업투입재가격(C)	105.7	109.4	133.5	142.6	30.3	6.8
농가교역조건(A/B×100)	123.7	118.2	105.9	99.0	-16.2	-6.5
농가경영조건(A/C×100)	126.5	118.8	95.4	86.7	-27.0	-9.1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2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6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전기 대비 24.4% 증가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51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였고, 전기 대비 3.3%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97만 3천 명, 여성 수는 7.2% 증가한 65만 8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184만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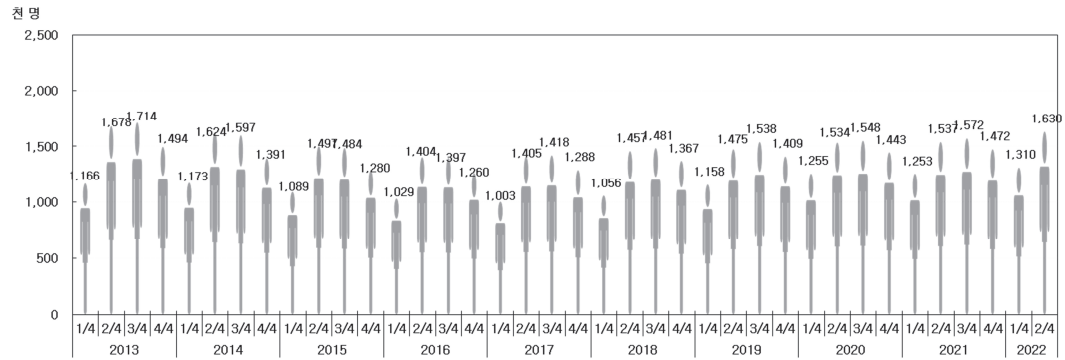
구 분		2021	2022		증감률(%)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7,467	27,369	28,347	3.2	3.6
	(계절조정)	(27,274)	(27,887)	(28,152)	3.2	1.0
	농림어업	1,537	1,310	1,630	6.1	24.4
	(계절조정)	(1,426)	(1,566)	(1,515)	6.2	-3.3
	남성	923	847	973	5.4	14.9
	여성	614	463	658	7.2	42.1
	농가	1,853	1,616	1,840	-0.7	13.9
	농가남성	1,044	957	1,027	-1.6	7.3
	농가여성	809	659	813	0.5	23.4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2020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절조정 자료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2년 2/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추세를 따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2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6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함.
 - 곡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하였지만, 과실류, 채소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4.9% 감소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함.
 - 포유육류, 낙농품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5.0% 감소하였으나, 가금육류는 52.8% 증가하여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하였지만, 전기 대비 2.2% 감소함.
- 2022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2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함.
 - 곡류, 과실류, 채소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3.8%, 4.1% 감소하였지만, 다른 가공품 수출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의 경우 포유육류, 가금육류, 낙농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51.7%, 3.1%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 2022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억 2,99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8%, 전월 대비 8.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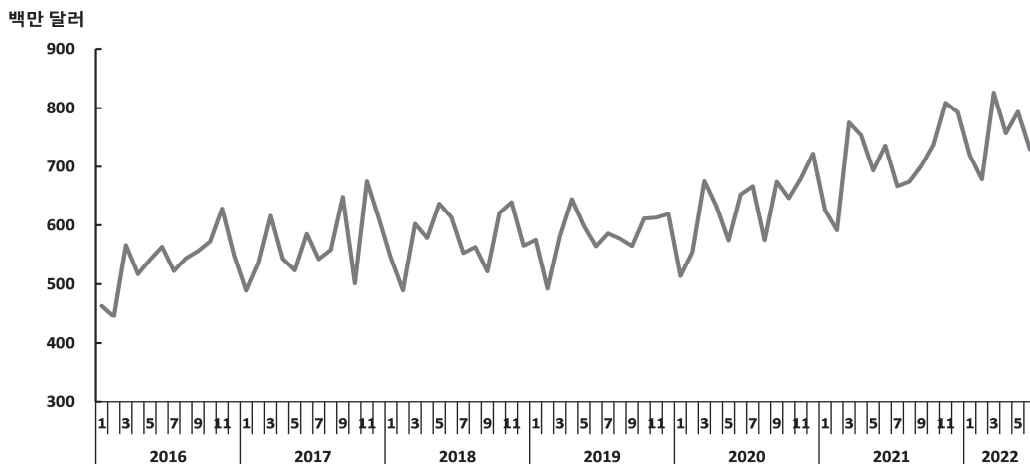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50	1,993	1,126	2,184	1,016	2,223	1,064	2,281	-5.5	4.5
농산물		741	1,768	883	1,920	801	1,959	851	1,993	-3.7	3.8
-곡류		11	9	61	24	11	9	67	22	9.8	-8.8
-과실류		28	82	29	70	31	90	27	67	-8.4	-3.8
-채소류		33	142	39	119	30	127	37	114	-4.9	-4.1
축산물		39	120	48	138	49	149	52	152	9.2	10.6
-포유육류		1	7	2	8	2	7	2	8	-0.4	2.0
-가금육류		8	13	10	16	15	21	15	24	52.8	51.7
-낙농품		10	42	9	40	10	48	8	42	-5.0	3.1
임산물		170	105	196	126	165	116	162	136	-17.4	7.9
수 산 물		165	567	178	676	225	783	274	923	54.2	36.6
전 체		1,115	2,560	1,304	2,859	1,241	3,006	1,338	3,204	2.6	12.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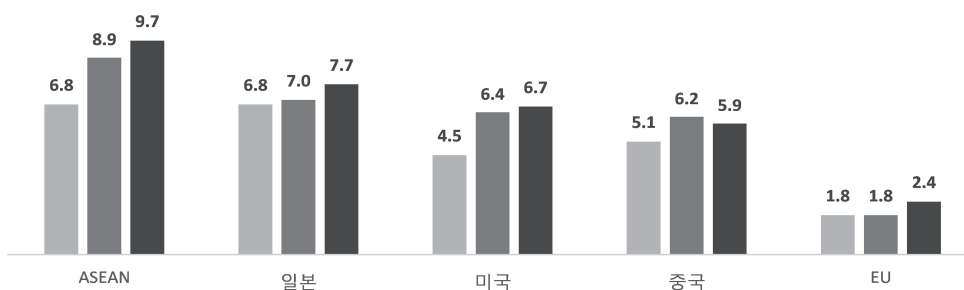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1~6월 농축산물 수출액은 4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였고,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3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일본, 미국, EU 등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그중 對EU 수출액이 37.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2022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88.9로 전분기 대비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출상품 제조원가(62.0), 수출채산성(69.4) 악화가 예상됨.²⁾
 -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물류비용 상승(28.9%), 원재료 가격 상승(23.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 평년 ■ 2021년 ■ 2022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2년 2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2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2.03.28).

4.2. 수입 동향

- 2022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430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임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2.5% 감소함.
- 2022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2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8%, 24.1%, 5.4% 증가함.
 - 곡류 수입액은 많은 수입량 비중을 차지하는 밀, 옥수수의 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함.
 - 포유 가축육류, 가금육류, 낙농품 수입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3.7%, 44.8%, 30.6%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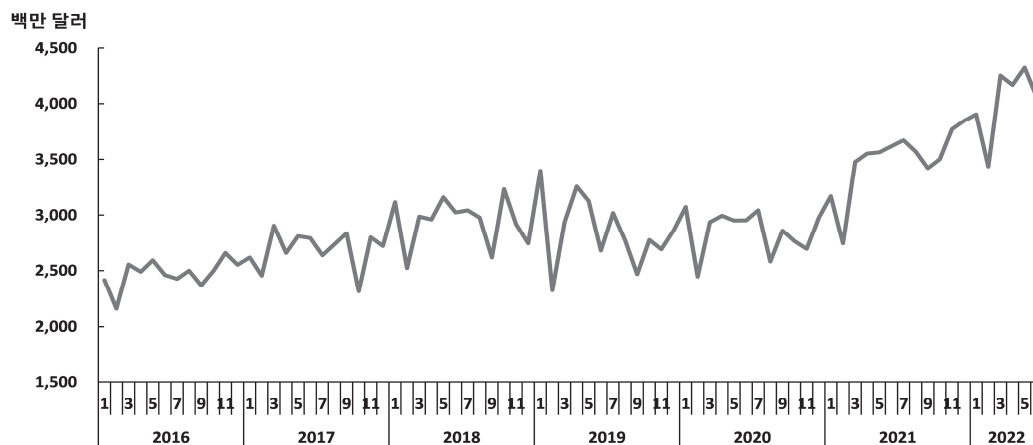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436	9,389	14,464	10,733	13,727	11,586	14,308	12,539	-1.1	16.8
농 산 물	8,927	5,707	9,472	6,531	9,134	6,968	9,404	7,694	-0.7	17.8
-곡류	4,080	1,070	4,369	1,267	4,220	1,531	4,193	1,617	-4.0	27.7
-과실류	312	549	368	690	270	542	325	667	-11.6	-3.3
-채소류	334	275	310	284	278	287	290	300	-6.4	5.4
축 산 물	467	2,108	472	2,217	499	2,722	500	2,752	5.9	24.1
-포유육류	255	1,372	253	1,414	294	1,846	276	1,748	9.3	23.7
-가금육류	49	105	45	102	47	125	55	148	22.2	44.8
-낙농품	91	328	92	332	93	362	105	433	14.6	30.6
임 산 물	4,043	1,574	4,519	1,985	4,093	1,896	4,404	2,092	-2.5	5.4
수 산 물	1,622	1,444	1,275	1,452	1,598	1,712	1,425	1,792	11.7	23.4
전 체	15,059	10,834	15,739	12,185	15,325	13,299	15,733	14,331	0.0	17.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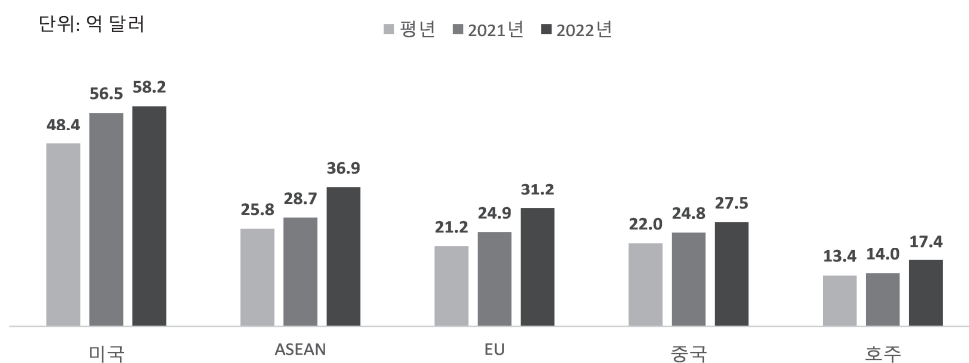
- 2022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0억 5,66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하였지만, 전월 대비 6.1%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2년 2분기」.

- 2022년 1~6월 농축산물 수입액은 24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함.

- 주요 농식품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미국 2.9%, ASEAN 28.6%, EU 25.1%, 중국 11.0%, 호주 24.8%).
- 그 외 아르헨티나, 인도, 페루 등 국가에서 수입액 증가가 크게 나타남.

4.3. 순수입 동향

- 2022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324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55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44만 8천 톤임.
- 2022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한 102억 5,800만 달러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25.0%,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년 2/4분기		2022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337	8,550	13,244	10,258	-0.7	20.0
농 산 물	8,589	4,611	8,553	5,702	-0.4	23.6
축 산 물	425	2,079	448	2,600	5.6	25.0
임 산 물	4,323	1,859	4,243	1,956	-1.9	5.2
수 산 물	1,097	776	1,151	869	4.9	11.9
전 체	14,435	9,326	14,395	11,127	-0.3	19.3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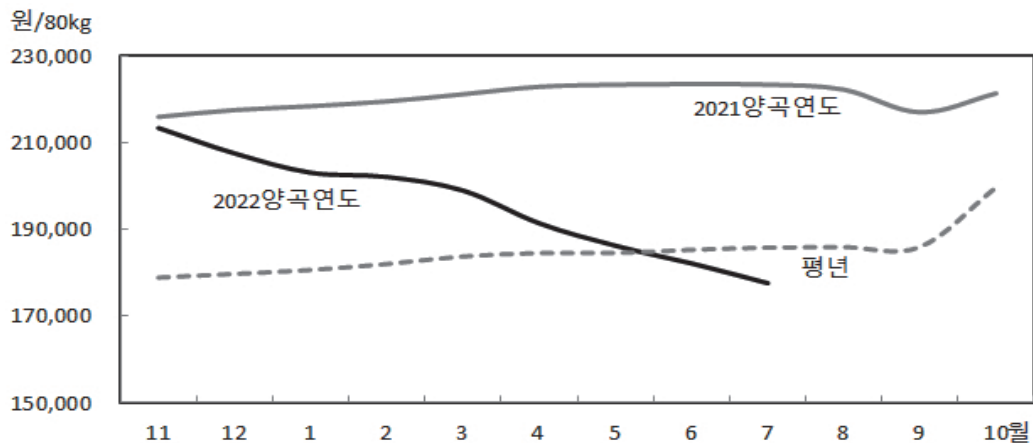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7~2021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산지 쌀 가격은 18만 6,595원/80kg(46,649원/20kg 기준)으로 1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16.5% 하락
 - 이는 정부의 시장격리(27만 톤) 조치에도 산지 유통경색에 따른 판매부진 등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조남욱 전문연구원(ukjo@krei.re.kr),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박한울 전문연구원(phuh87@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진아(jina1008@krei.re.kr), 강윤정(kangy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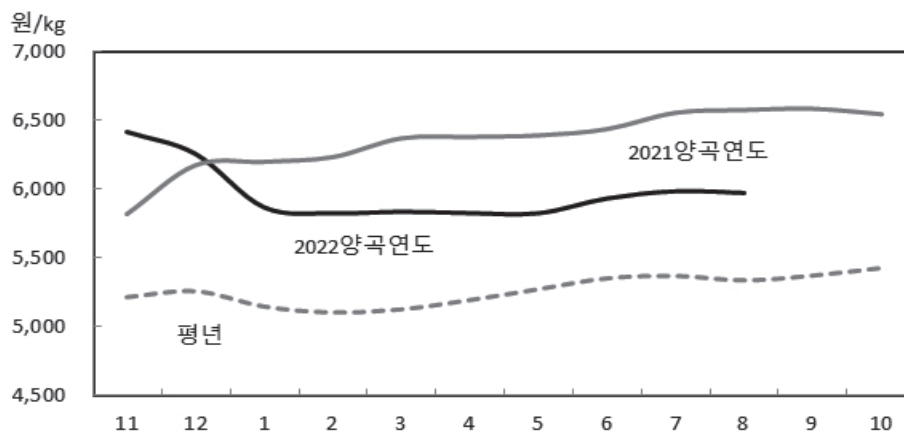
으로 재고가 전·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 산지유통업체 재고(6월 말 기준) 전년 대비 85.5% 증가(32만 톤↑)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산지 쌀 가격은 17만 7,579원/80kg으로 2분기 및 전년 대비 각각 4.8%, 20.5% 하락
 - 3분기 산지 평균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격리(10만 톤, 총 37만 톤)에도 산지 과잉재고로 2분기 대비 하락세 지속 전망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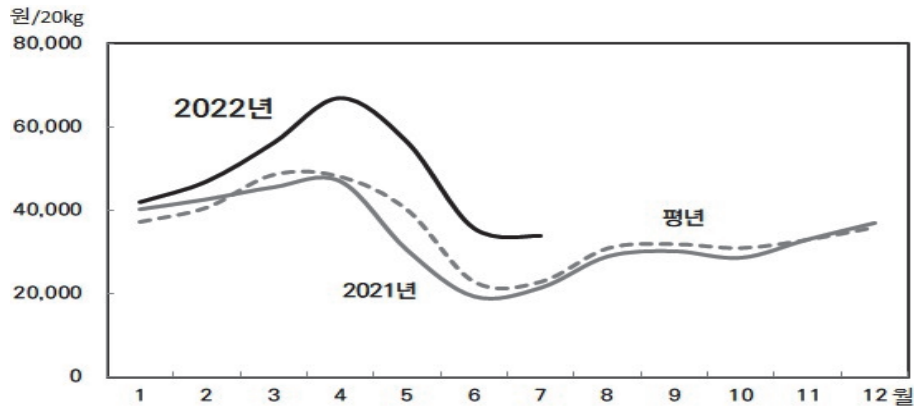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7~2021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917원/(백태 상품 kg)으로 1분기와 비슷, 전년 동기 대비 7.6% 하락
 - 이는 생산증가로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임. 다만, 산지출하조 절로 1분기 이후 큰 등락없이 보합세 유지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5,975원/(백태 상품 kg)으로 2분기와 비슷, 전년 동기 대비 8.9% 하락
 - 3분기 가격은 정부재고 방출 등 공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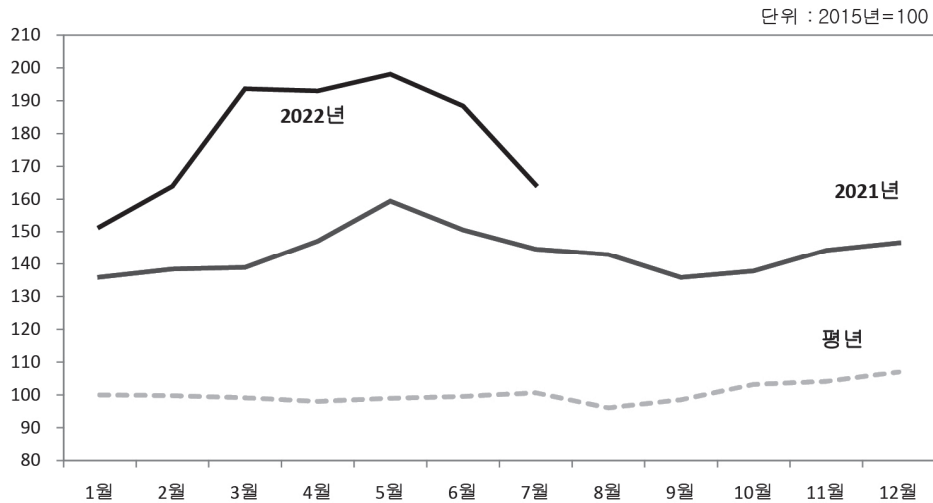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7~2021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감자 평균 도매가격은 53,080원/(수미 상품 20kg)으로 1분기 및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6%, 63.7% 상승
 - 이는 노지 봄감자 작황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임.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감자 평균 도매가격은 고랭지 생산 증가 및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2분기보다 낮으나 전년 동기 대비 56.9% 높은 33,881원/(수미 상품 20kg)
 - 3분기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고랭지 생산증가 및 정부 비축물량 방출에도 저장감자 출하 감소 등으로 전·평년보다 높을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7~2021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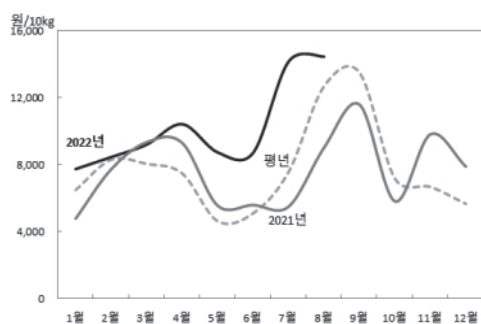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22년 2분기 동향
 - 2022년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13.8% 상승한 193.3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 곡물 공급 차질 지속, 식물성 유지류 등 관련 상품 가격 상승, 세계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 영향 등으로 상승함.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3% 하락한 169.6으로 전망됨.
 -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및 달러화 강세, 국제원유 가격 하락 전망 영향 등으로 하락 전망되나 북반구 생육기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하락폭 제한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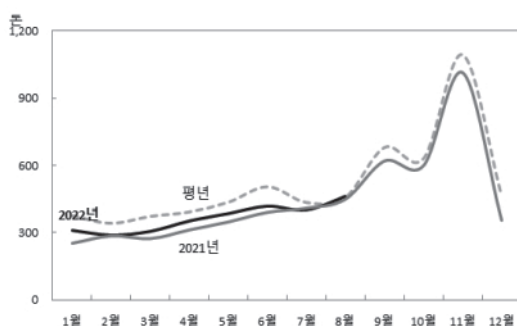
2. 업근채소²⁾

2.1.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6~2020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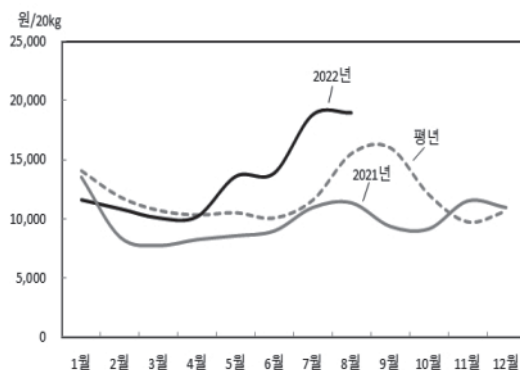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9,270원/1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5.8%, 61.9% 상승)
 -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 감소 및 봄배추 생산량 감소로 2분기 가격 상승
 - * 겨울배추 저장량 7만 8천 톤(전년 대비 10.9% 증가, 평년 대비 2.5% 감소)
 - * 봄배추 생산량 26만 9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1%, 11.1% 감소)
 - * 2022년 가격: (4월) 10,410원/10kg, (5월) 8,720원, (6월) 8,690원
 - * 2분기 가격: (2022년) 9,270원/10kg, (2021년) 6,830원, (평년) 5,730원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봄배추 저장량 2만 5천 톤 내외(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4%, 14.6% 감소)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봉희(hanbh@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백호승(white7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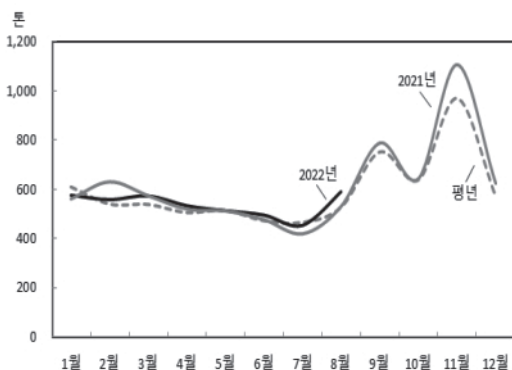
- * 저장물량 조기 출하 및 감모율 상승으로 저장 출하 종료 시기 평년(9월 중순) 대비 빨라질 가능성
- 2022년 여름(고랭지)배추 생산량 41만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3%, 3.4% 감소)
 - * 재배면적 5,316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2%, 0.3% 감소)
 - * 단수 7,721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2%, 3.1% 감소)
 - * 준고랭지1기작(6월~7월 중순 출하) 배추 작황 생육기(5월) 고온으로 평년 대비 부진
 - * 7월~8월 상순 출하 배추 작황 기상여건 악화(고온, 잦은 비)로 평년 대비 부진
- 3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0%, 10.0% 감소
- 3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8,710원/10kg) 및 평년(11,240원) 대비 상승
- 2022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2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13,206ha(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 1.8% 감소)
 - * 전년 작황 부진했던 강원, 충청지역 감소폭 확대, 호남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재배의향 증가

2.2.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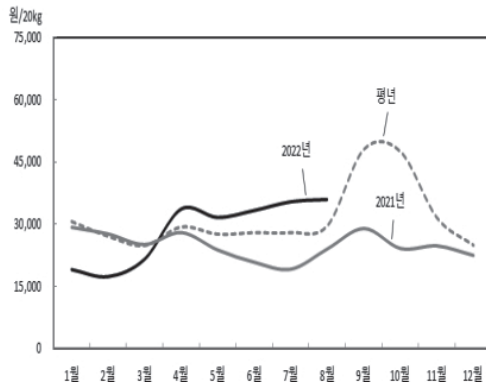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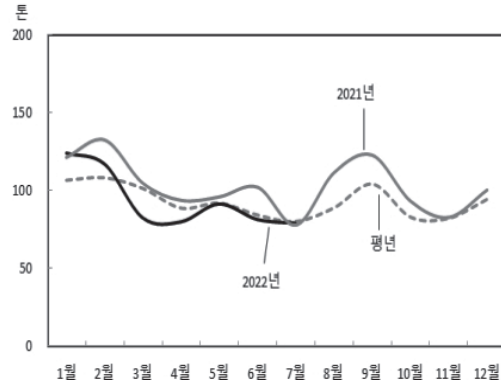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2,61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6.9%, 22.5% 상승)
 - 겨울무 저장량 및 봄무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겨울무 저장량 4만 3천 톤(전년 대비 21.4% 감소, 평년 수준)
 - * 봄무 생산량 9만 3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9%, 23.7% 감소)
 - * 2022년 가격: (4월) 10,170원/20kg, (5월) 13,590원, (6월) 13,870원
 - * 2분기 가격: (2022년) 12,540원/20kg, (2021년) 8,580원, (평년) 10,290원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노지봄무 저장량 9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8.6%, 23.0% 감소)
 - 2022년 여름(고랭지)무 생산량 23만 7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1%, 4.1% 감소)
 - * 재배면적 2,650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3%, 3.0% 감소)
 - * 단수 8,946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4%, 1.1% 감소)
 - * 준고랭지1기작(7월~8월 상순 출하) 작황 기상여건 악화(고온, 잦은 비 등)로 평년 대비 부진, 고랭지무(8월 중순 이후 출하)는 평년 수준
 - 3분기 무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7%, 9.0% 감소
 - * 노지봄무 저장량 및 여름(고랭지)무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 감소
 - 3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10,550원/20kg) 및 평년(14,350원) 대비 상승
- 2022년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 2022년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4,825ha (전년 대비 2.3% 감소, 평년 수준)
 - * 연작피해 우려로 재배의향 감소, 주요 대체작목은 콩, 들깨, 감자 등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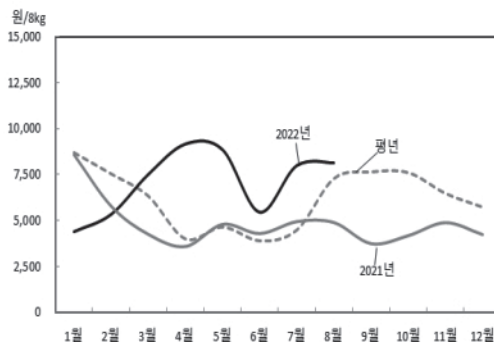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32,85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6.3%, 16.2% 상승)
 - 봄당근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봄당근 생산량 2만 8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15.4%, 4.5% 감소)
 - * 2022년 가격: (4월) 33,620원/20kg, (5월) 32,620원, (6월) 33,300원
 - * 2분기 가격: (2022년) 32,850원/20kg, (2021년) 24,100원, (평년) 28,280원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봄당근 저장량 1만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6%, 4.5% 감소)
 - 2022년 여름(고랭지)당근 생산량 9천 톤 (전년 대비 1.8% 감소, 평년 대비 38.5% 증가)
 - * 재배면적 399ha (전년 대비 2.5% 감소, 평년 대비 45.1% 증가)
 - * 단수 2,311kg/10a (전년 대비 0.7% 증가, 평년 대비 4.6% 감소)
 - * 5월 가뭄으로 발아율 감소, 6~7월 장마 및 고온으로 작황 평년 대비 부진
 - 3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대비 10.2% 감소, 평년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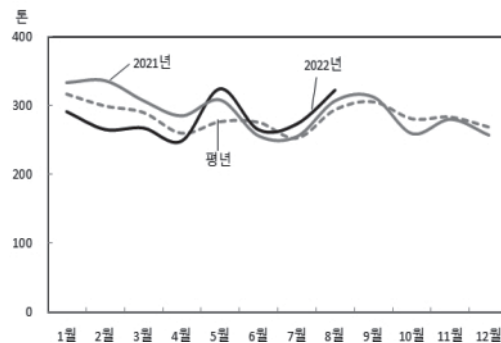
- 3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23,960원/20kg) 대비 상승, 평년(35,230원)과 비슷
- 2022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망
 -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162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9%, 21.8% 감소)
 - * 전년 출하기(11~12월) 가격 낮아 재배(의향)면적 감소, 콩 등으로 작목 전환
 - * 시설당근(충청) 파종은 7월 하순 마무리, 노지당근(영남)은 7월 하순~8월 상순 본격 파종

2.4.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 7,82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7.9%, 85.0% 상승)
 - 겨울 만생종 및 봄양배추 재배면적 감소, 봄양배추 2월 저온 및 4월 고온 및 가뭄으로 작황 부진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겨울양배추 저장량 8천 3백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0%, 9.6% 감소)
 - * 봄양배추 생산량 6만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9%, 16.9% 감소)
 - * 2022년 가격: (4월) 9,170원/8kg, (5월) 8,860원, (6월) 5,430원

* 1분기 가격: (2022년) 7,820원/8kg, (2021년) 4,230원, (평년) 4,160원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여름(고랭지)양배추 생산량 7만 7천 톤 내외(전년 대비 3.5% 감소, 평년 대비 4.5% 증가)

* 재배면적 1,837ha (전년 수준, 평년 대비 8.9% 증가)

* 단수 4,204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6%, 4.1% 감소)

* 7월 고온 및 일조시간 부족 등 기상여건 부진하여 준고랭지1기작 작황 부진

* 고랭지양배추 병충해 발생 미미하나, 구 크기 평년 대비 감소

- 3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8%, 2.0% 감소

- 3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4,530원/8kg) 대비 상승, 평년(6,460원) 대비 하락

• 2022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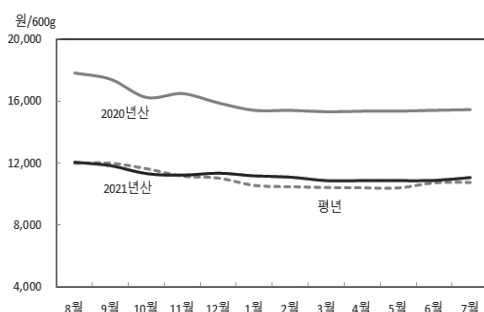
- 2022년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677ha (전년 대비 4.5% 감소, 평년 수준)

* 전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감소, 대체작목 콩, 마늘, 양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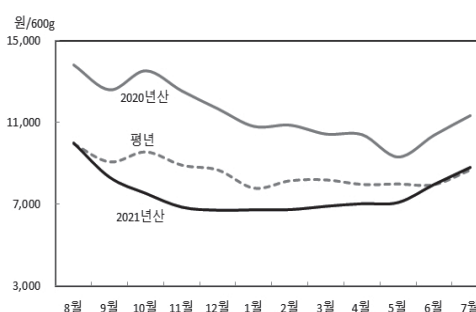
3. 양념채소³⁾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6년 8월~2021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건고추 도매 및 산지 가격(상품 화건 600g 기준) 2021년산 생산량 많아 전년 대비 각각 29%, 27% 하락
- 산지가격은 2022년산 건고추 재배면적 감소, 작황 부진으로 재고 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상승

* 2021년산 도매가격(원/600g): (22년 1분기) 11,032 → (22년 2분기) 10,863

산지가격(원/600g): (22년 1분기) 6,774 → (22년 2분기) 7,350

* 2분기 도매가격(원/600g): (금년) 10,863 (전년) 15,374 (평년) 10,488

산지가격(원/600g): (금년) 7,350 (전년) 10,022 (평년) 7,992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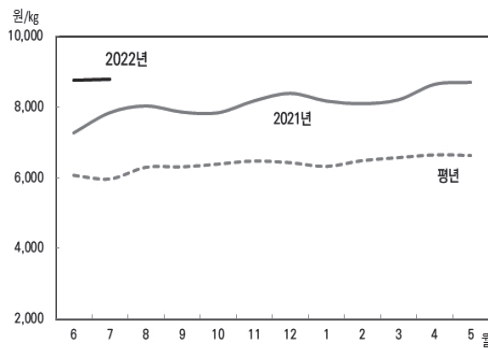
- 7월 건고추 도매 및 산지가격(상품 화건 600g 기준) 2분기 대비 각각 2%, 34% 상승한 11,060원, 9,880원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김치운(kcu522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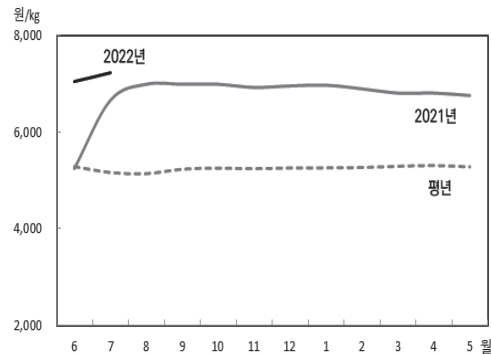
- 3분기 전고추 가격 전년 대비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2022년산 전고추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022년산 전고추 재배면적은 2021년산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만 9,622ha 전망
 - 생육기 가뭄 및 7월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증가, 작황 부진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7년 6월~2022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간마늘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저장 마늘 재고량 감소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5%, 35.1% 상승
 - * 2/4분기 평균 도매가격: (금년) 8,706원/kg, (전년) 7,408원, (평년) 6,457원
 - * 월별 도매가격: (4월) 8,646원/kg, (5월) 8,700원/kg, (6월) 8,773원/kg
- 2022년산 마늘 생산 동향
 - 농업관측센터 실측 조사 결과, 2022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7.1% 적은 29만 1천 톤

- * 2022년산 한지형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반면, 난지형은 1.5% 증가
- * 2022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겨울 냉해와 생육기 가뭄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1,228kg/10a

2022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23,686	1,228	290.8
2021		23,528	1,330	313.0
평년		25,975	1,285	333.7
증감률	전년 대비	0.7	-7.7	-7.1
	평년 대비	-8.8	-4.4	-12.8

주: 2021년산,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평년은 통계청 조사 결과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 의향
 -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와 모형 추정 결과를 감안한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9만 259톤~9만 3,104톤으로 전년 대비 3.4~6.4% 감소 전망
 - *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7. 20.),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6.4% 감소
 - * 농업관측센터 입고량 모형 분석 결과,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전년 대비 3.4% 감소
 - 2022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5,200원/kg 내외로 전년(4,700원/kg 내외) 대비 상승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 추정

단위: 톤, %

연산		생산량	입고(의향)량
2022		209,824	90,259~93,104
2021		312,996	96,419
평년		333,668	107,000
증감률	전년 대비	-7.1	-6.4 ~ -3.4
	평년 대비	-12.8	-15.6 ~ -13.0

주 1. 2021년산 입고량은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임.

2. 평년 입고량은 냉장협회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 및 모형 전망치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깐마늘 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2.0% 상승한 8,779원/kg
- 2022년 8, 9월 마늘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으나, 7월 대비 하락 전망

- 2023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2022년산 대비 증가 전망

- 2023년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4.1% 증가한 24,657ha 추정

* 품종별로 한지형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4,659ha, 난지형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9,999ha 전망

2023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3		4,659	19,999	24,657
2022		4,628	19,058	23,686
평년		5,196	20,779	25,975
증감률	전년 대비	0.7	4.9	4.1
	평년 대비	-10.3	-3.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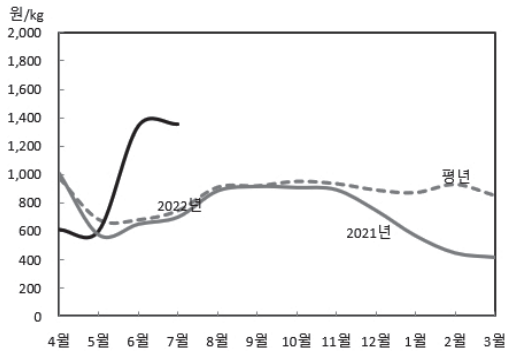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8~2022년산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2.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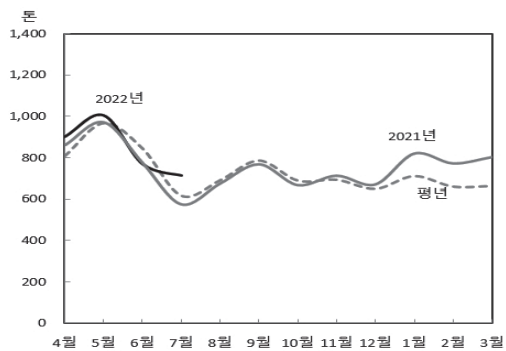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조사 결과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4.6%, 9.9% 높은 상품 kg당 852원
 - * 양파 도매가격: (금년) 852원/kg, (전년) 744원/kg, (평년) 776원/kg
 - * 월별 도매가격: (4월) 611원/kg, (5월) 604원/kg, (6월) 1,343원/kg
- 2022년산 양파 생산 동향
 -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결과 2022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16.5%, 18.9% 감소한 114만 3천 톤
 - * 양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6.5% 감소, 단수 전년 대비 10.7% 감소
 - 품종별로 조생종양파는 전년 대비 7.1% 감소한 20만 2천 톤, 중만생종양파는 전년 대비 18.3% 감소한 94만 1천 톤

2022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 ha, 천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17,327	6,597	1,143
2021	18,532	7,390	1,370
평년	19,949	7,068	1,410
전년 대비	-6.5	-10.7	-16.5
평년 대비	-13.1	-6.7	-18.9

주: 2022년산 조생종양파 산지폐기 고려한 수치
 자료: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통계청

- 2022년산 양파 저장 동향
 - 표본 조사치와 모형 분석치를 감안한 2022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61만 2천~63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11.4~14.9% 감소 전망
 - *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표본 조사결과(7. 20.), 2022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14.9% 감소
 - * 농업관측센터 입고량 모형 분석결과, 2022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11.4% 감소
 - 2022년산 중만생종양파 평균 입고가격은 950원/kg 내외로 전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

2022년산 중만생종양파 추정 입고량

단위: 천 톤, %

연산	2022	2021	전년 대비
표본 조사치	612	719	14.9
모형 추정치	637	719	11.4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및 모형 추정치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343원으로 전년(651원) 대비 상승
 - 8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700원)보다 높을 전망

- 2023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22년 대비 감소
 - 2023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16,596ha 추정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9.0% 감소, 중만생종은 4.5% 감소

2023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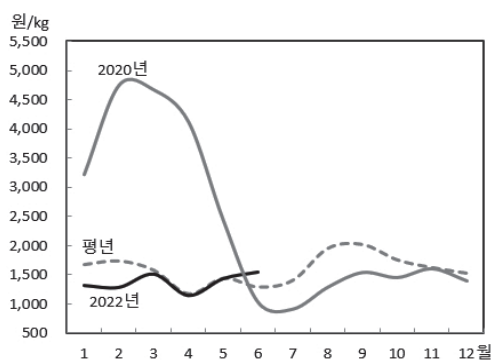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3	2,708	13,887	16,596
2022	2,975	14,546	17,521
평년	2,923	16,588	19,511
전년 대비	-9.0	-4.5	-5.3
평년 대비	-7.3	-16.3	-14.9

주: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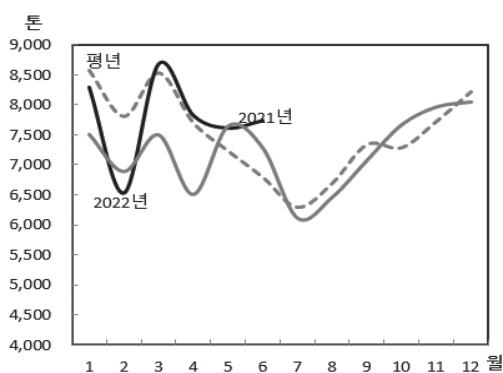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파 반입량 동향



- 2022년 2분기 동향
 - 대파 2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369원/kg(중품 1,173원/kg)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5.6% 하락, 6.3% 상승
 - * (금년) 1,373원/kg, (전년) 4,210원, (평년) 1,658원
 - * (4월) 1,147원/kg → (5월) 1,431원 → (6월) 1,542원
 - 대파 2분기 가격은 전남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5월까지 전년 대비 가격이 낮았으나, 이후 가뭄과 장마 영향으로 봄대파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장마 영향으로 경기지역 출하가 지연되며 전년(913원/kg)보다 높은 1,802원/kg
 - 3분기는 생산량은 강원지역 고랭지대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3분기 가격은 강원지역 대파 출하량이 증가하나, 경기지역 출하대기면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높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강원지역 지역별 고랭지대파 재배면적

단위: %

구분	강릉	철원	평창	홍천	양구	전체
전년 대비	-1.9	2.9	10.6	4.5	47.1	11.7

자료: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조사
 - * 금년 겨울대파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 감소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연산		재배면적
2022		3,136
2021		3,344
평년		3,311
증감률	전년	-6.2
	평년	-5.3

자료: 전남도청, 농업관측센터

전남지역 지역별 겨울대파 재배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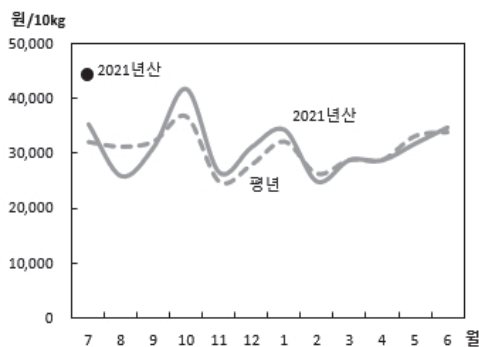
구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대비	-6.2	-5.6	-0.3	-14.5	-6.2

자료: 전남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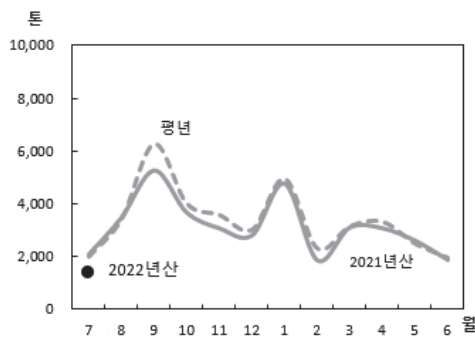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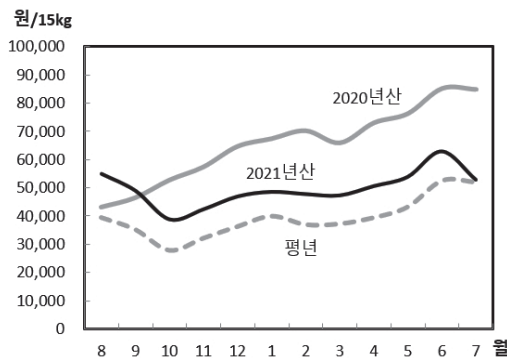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4~5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27%)로 전년 대비 21% 하락한 3만 100원/10kg이었음.
 - 6월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7%)로 전년 대비 7% 상승한 3만 4,600원/10kg이었음. 전년도 6월 이후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금년에는 5월에 출하를 조기 종료한 농가가 많아 반입량이 감소하였음.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후지 도매가격은 2021년산 저장사과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44% 상승한 3만 4,000원이었음.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이혜인(hyen@krei.re.kr), 윤성욱(yunsw@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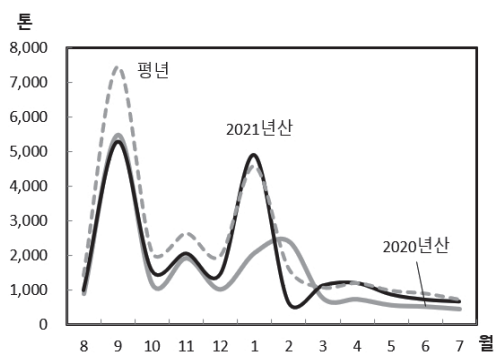
- 2022년산 사과 생산량 전년과 비슷하나, 이른 추석 영향으로 홍로를 조기 수확하여 8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하겠으나, 9월에는 홍로 조기 수확으로 4% 감소할 전망이다. 8월 하순부터 추석 성수품 출하가 이뤄지겠으며, 추석이 빨라 품질(색택, 크기 등)에 따른 등급 간 가격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생산량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51만 5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으나, 후지 품종의 해거리 발생으로 단수가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음.
 - 품종별로 홍로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고, 후지 계열은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3~9% 감소할 전망이다. 감홍 및 기타 품종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9~22% 증가할 전망이다.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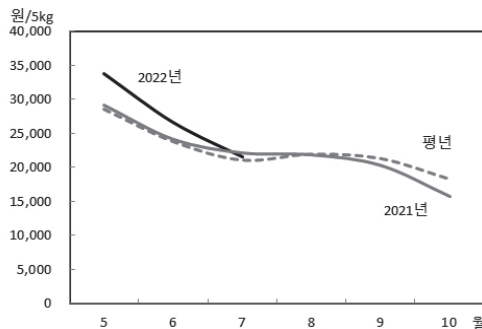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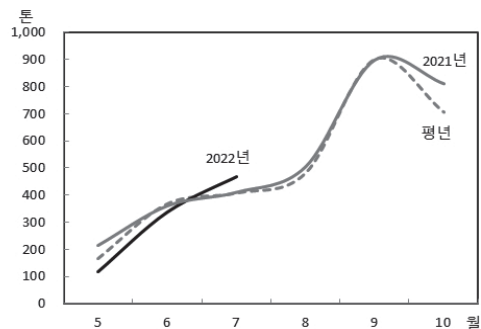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전년 대비 53%)로 전년 대비 29% 하락한 55,700원/15kg이었음.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38% 하락한 52,800원/15kg이었음.
 - 8월 햇배(원황)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햇배 품질은 고온과 가뭄으로 일부 과 비대가 지연되어 전년 대비 부진하나, 모양은 전년 대비 좋고 일조량이 많아 당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생산량 전망
 - 2022년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만 7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착과수 및 봉지수가 증가하고 생육이 원활하여 단수도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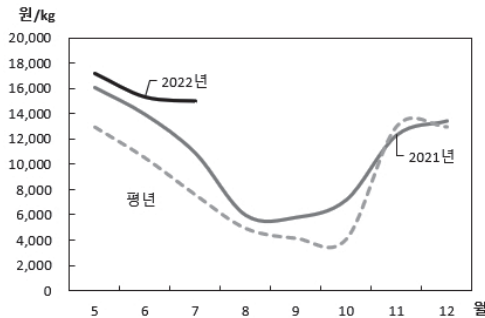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하우스온주(3kg)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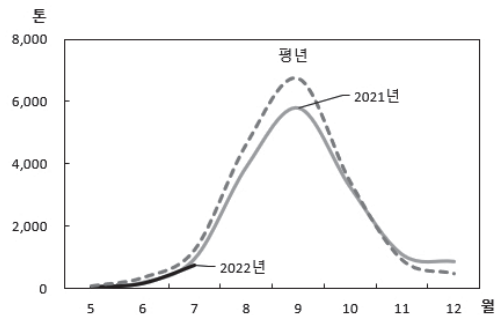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5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도 가을철 고온에 의한 가온 개시 지연 및 착화량 감소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6% 상승한 3만 3,700원/3kg이었음.
 - 6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감소로 전년 대비 10% 상승한 2만 6,600원/3kg이었음.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 하락한 2만 1,500원/3kg이었음. 6월 말 이후 출하 지연되었던 물량이 정상 출하되면서 반입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함.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재배면적 확대와 이른 추석(9.10.)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9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노지온주 착과수
 - 노지온주 단위면적(10a)당 착과수는 전년 대비 4% 감소함. 지역별로 서귀포시는 해거리현상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제주시는 8% 증가함.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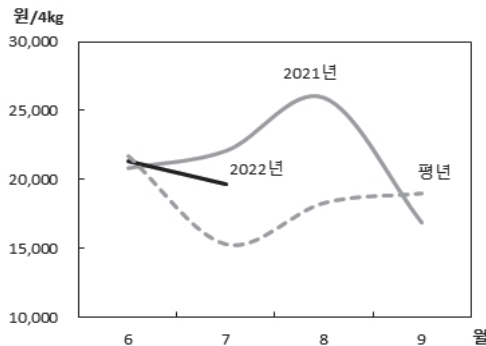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2kg), 6~7월 거봉(2kg), 8~10월 캠벨얼리(3kg), 11~12월 샤인머스켓(2kg)을 kg으로 환산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2년 2분기 동향
 - 2분기 델라웨어, 거봉 평균 도매가격은(가락시장/상품)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이는 샤인머스켓으로의 품종 전환이 많아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5월 델라웨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7% 상승한 34,400원/2kg, 6월 거봉 가격은 9% 상승한 30,600원/2kg이었음.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캠벨얼리 및 거봉 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27%, 37% 상승한 33,000원/3kg, 29,900원/2kg이었음. 7월 샤인머스켓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7% 하락한 39,500원/2kg이었음.
 - 8~9월도 캠벨얼리와 거봉 출하량은 전년 대비 줄겠으나, 샤인머스켓은 재배 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겠음. 다만, 샤인머스켓은 추석 선물 수요가 높아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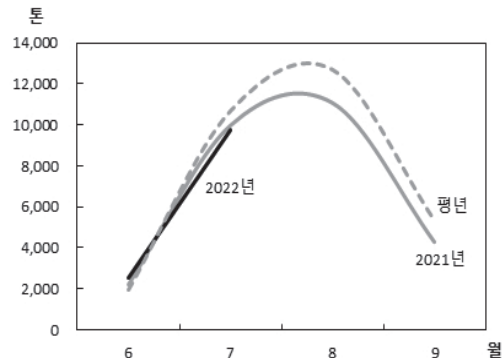
- 2022년 생산량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0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생육기 기상 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단위당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 캠벨얼리와 거봉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각각 4%, 10% 감소하겠으나, 샤인머스켓은 재배면적 및 단위(유목의 성목화)가 늘어 56% 증가할 전망이다.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3) 2021년 이전 백도, 천중도, 장호원황도(엘버트) 가격은 4.5kg을 4kg으로 환산한 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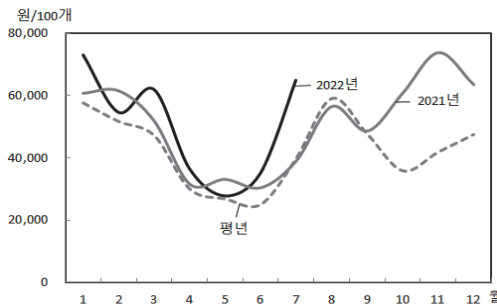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6월 천도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당도가 좋고 대체품목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 상승함.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31% 상승한 2만 6,600원/10kg이었고, 백도(유모계)는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1% 하락한 1만 9,600원/4kg이었음.
 - 8월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 천도계, 유모계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1%, 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생산량 전망
 -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0만 6천 톤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 증가하였고,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5%,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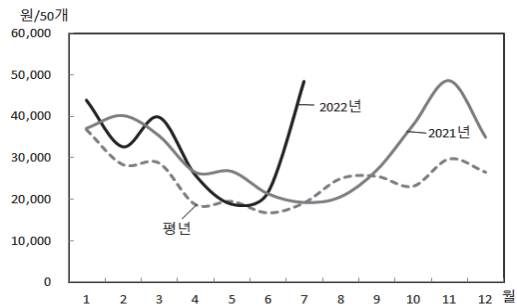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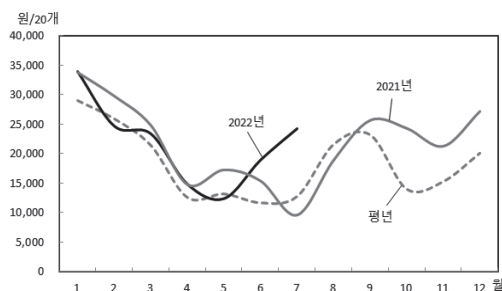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6,500원/100개, 5월 27,700원, 6월에는 35,0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33,100원/1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하였음.
 - 2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일조시간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25,900원/50개, 5월 18,900원, 6월은 21,6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22,100원/50개로 전년 동기보다 11% 하락하였음.
 - 2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의 생육 양호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였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환희(w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강형준(94ju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66% 높은 65,000원/100개이었음.
 - 8~9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강원 지역과 충청지역에서 고온 및 잦은 비로 착과 불량 및 병 피해 발생이 늘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151% 높은 48,300원/50개이었음.
 - 8~9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면적 감소와 생육 부진으로 전년 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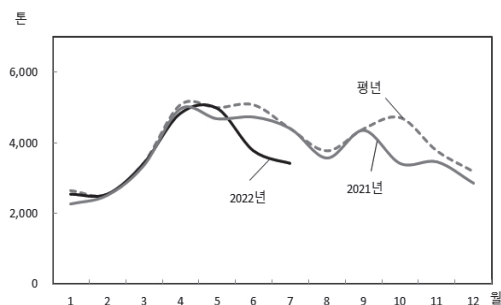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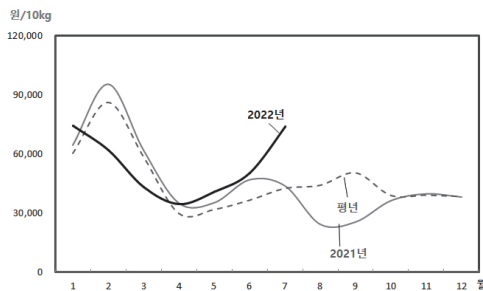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4,900원/20개, 5월 12,400원, 6월 19,0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5,800원) 동기 대비 2% 하락한 15,400원/20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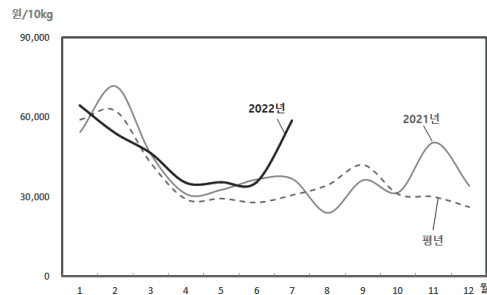
- 2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음. 4~5월 반입량은 충청·영남지역의 작황이 양호하여 반입량이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지만, 6월 반입량은 충청지역 기상 여건 악화(일조시간 감소 등)로 생육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음.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9,600원) 대비 152% 상승한 24,200원/20개이었음.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전년 대비 잦은 비 등으로 바 이러스, 병해충이 많아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8~9월 애호박 출하량은 강원지역 재배면적 감소와 병해충, 바이러스 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오이맛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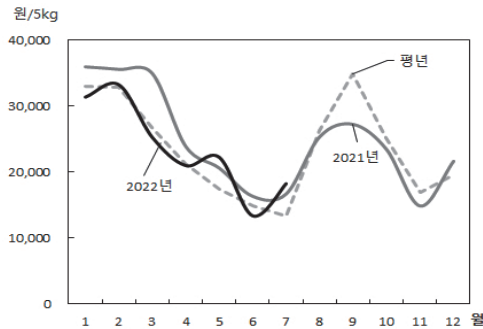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4월 34,600원/10kg, 5월 40,900원, 6월 50,4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39,000원) 대비 7% 높은 41,900원/10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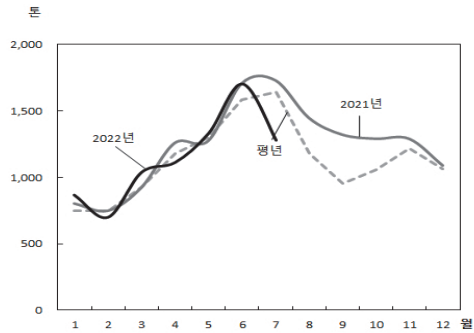
- 청양계꽃고추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 지연 등으로 품위가 하락하여 상품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 오이맛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4월 35,300원/10kg, 5월 35,500원, 6월 35,5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33,400원) 대비 6% 높은 35,400원/10kg이었음.
- 오이맛고추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경남과 충남지역에서 작목 전환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인력 부족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상품/가락시장)은 전년 대비 69% 높은 73,900원/10kg이었음. 7월 오이맛고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60% 높은 58,700원/10kg이었음.
 - 청양계꽃고추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이유는 강원지역 6~7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오이맛고추는 충남지역에서 출하를 조기에 마무리하였고, 강원지역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 8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줄었고 작황도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오이맛고추는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면적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하나, 오이맛고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4. 빨강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빨강파프리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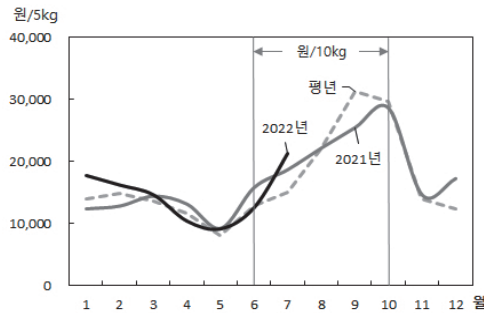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21,000원/5kg, 5월 22,300원, 6월 13,4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7% 낮은 18,900원/5kg이었음.
 - 2분기 빨강파프리카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하였음. 영·호남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 지연과 병·해충·바이러스 피해 증가 등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9% 높은 18,300원/5kg이었음.
 - 가격이 전년 대비 높았던 것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기상 여건 악화로 낙과가 발생하고 생육이 지연되어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8~9월 빨강파프리카 출하량은 작목 전환과 인력 부족, 품종 변경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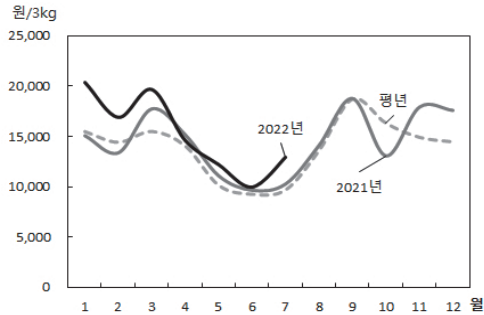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2022년 2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0,500원/5kg, 5월 9,200원/5kg, 6월 12,600원/1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 하락함.
- 2분기 일반토마토 반입량은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였음.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4,600원/3kg, 5월 12,200원, 6월 9,9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12,000원) 대비 2% 상승한 12,200원/3kg이었음.
- 2분기 대추형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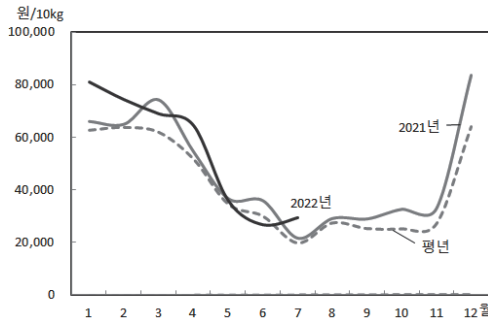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18,600원) 대비 14% 상승한 21,200원/10kg이었음.
- 8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기상 여건 악화(일조량 부족, 고온다습)로 작과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9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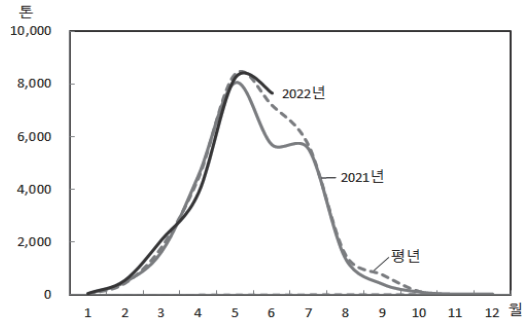
- 7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기상 악화(젖은 비, 고온)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10,300원) 대비 26% 상승한 12,900원/3kg이었음.
- 8~9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주산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6.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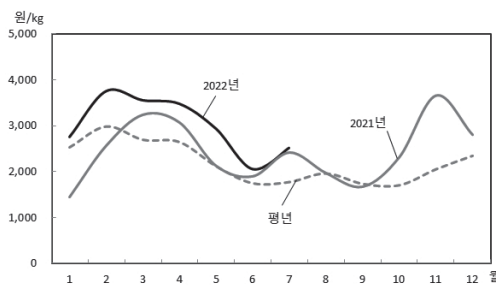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64,400원/10kg, 5월 35,700원, 6월 26,5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28,1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였음.
 - 참외 2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였음. 이는 기상 여건이 좋아 작과가 양호하여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임.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36% 높은 29,200원/10kg이었음.

- 8~9월 참외 출하량은 주 출하지에서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와 병해충(담배, 온실가루이 등)의 피해로 출하 조기 종료 농가 증가와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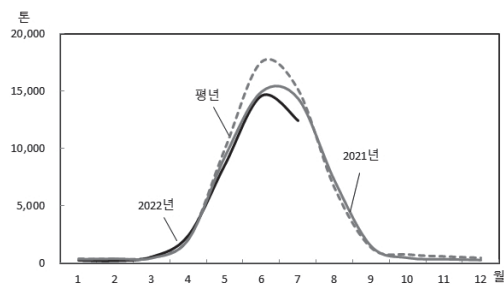
5.7.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수박 반입량 동향



- 2022년 2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480원/kg, 5월 2,930원, 6월 2,05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2,360원) 동기 대비 19% 상승한 2,820원이었음.
 - 수박 2분기 반입량은 기상 여건 악화로 수정 불량 및 생육이 지연되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였음. 반입량 감소 폭 대비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이유는 소비 대체재(참외 등) 가격이 높고,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였기 때문임.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2,420원) 대비 4% 상승한 2,510원/kg이었음.
 - 8~9월 수박 출하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고온다습한 날씨에 따른 병·바이러스 발생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6)

6.1. 한육우

- (한육우) 2/4분기 동향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와 가임암소 증가로 3월(355만 7천 마리)보다 3.3% 증가한 367만 4천 마리(전년 동월 356만 8천 마리보다 3.0% 증가).
 -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351만 1천 마리, 육우 16만 3천 마리
 - * 한육우 가임암소 마릿수 164만 5천 마리(전년 동월 156만 4천 마리보다 5.2% 증가)
 - 2/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19,754원/지육kg보다 1.4% 하락한 19,484원(전년 동기 21,301원보다 8.5% 하락, 평년 동기 18,585원보다 4.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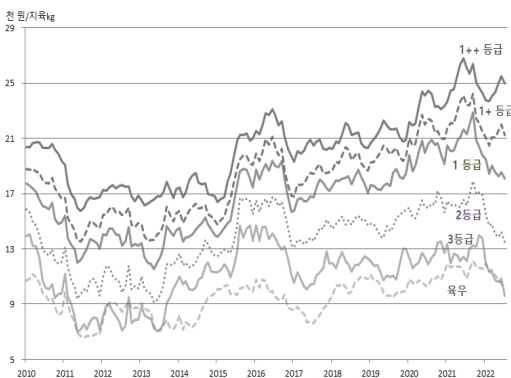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우

구분	21년				22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p
사육 농장수	93	94	94	94	93	93
총 마릿수	3,373	3,568	3,623	3,589	3,557	3,674
가임 암소	1,532	1,564	1,634	1,640	1,620	1,645

주: 2022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김경진(kkj0470@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태환(kimth3368@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한우) 3/4분기 전망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45만 1천 마리)보다 4.2% 증가한 359만 5천 마리로 전망
 - 3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9,500~20,500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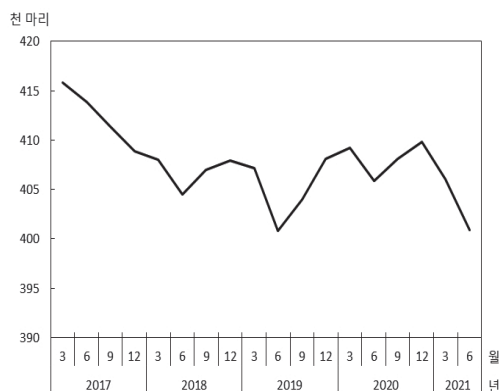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21년(A)	2022년	2022년(B)	B/A
사육 마릿수	9월 345만 1천 마리	6월 351만 1천 마리	9월 359만 5천 마리	4.2%
평균 도매가격 (지육kg)	3분기 21,956원	2분기 19,484원	3분기 19,500~20,500원	-11~-7%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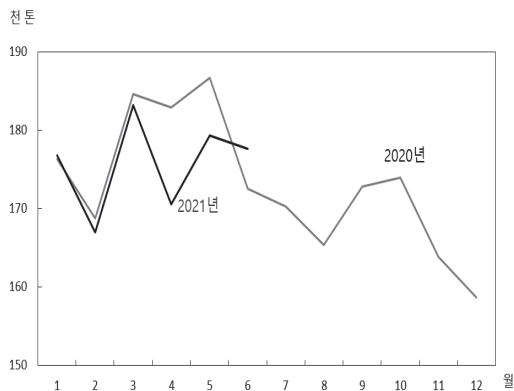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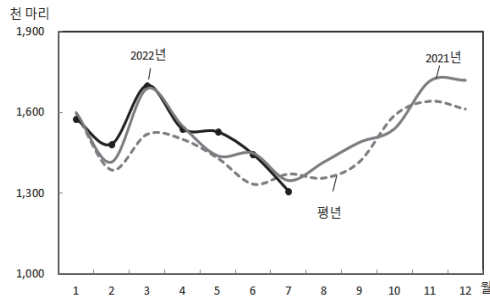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4분기 동향
 - 2022년 6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38만 5천 마리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51만 톤
- 3/4분기 전망
 - 2022년 9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3.9% 내외 감소한 38만 3천~38만 5천 마리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4.5% 내외 감소한 47만 2천~47만 7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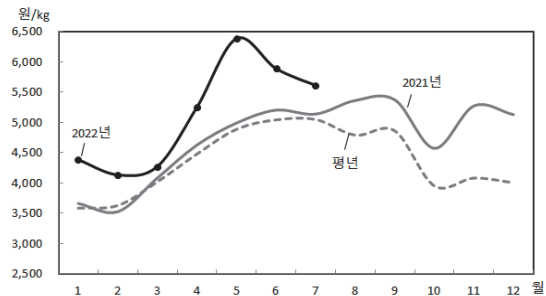
6.3.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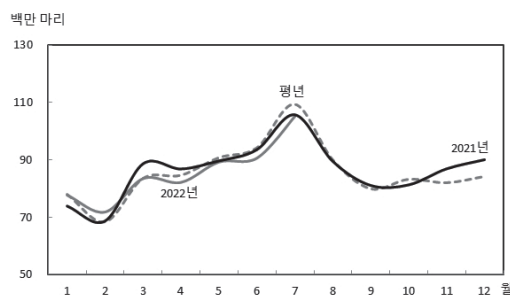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4분기 동향
 - 2022년 6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97만 6천 마리,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자돈(1.6%) 및 육성돈(3.0%)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1,189만 9천 마리(이력제)
 - 2/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간(444만 마리) 대비 1.7% 증가한 451만 마리

- 2/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정의 달 및 행락철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4,985원/kg) 대비 16.0% 상승한 5,782원/kg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4분기 도축 마릿수의 경우, 7월은 이른 폭염 영향이 있었으나 8월 이른 추석 영향 및 작업일수 증가, 9월 증체 지연 물량 출하 등으로 전년(425만 마리) 대비 0.7% 증가한 428만 마리 전망
 - 3/4분기 도매가격은 7월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에 따른 수요 증가, 8월 이른 추석으로 전년(5,297) 대비 상승한 5,300~5,500원/kg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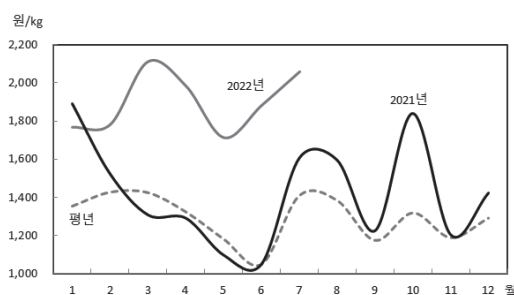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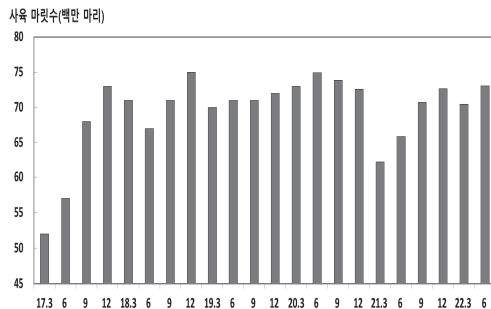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4분기 동향
 - 6월 31일 기준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492만 마리
 - 1분기 총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2억 6천 2백만 마리
 - *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2억 1천 2백만 마리

- 1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2.3% 상승한 1,860원/kg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3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 감소와 폭염 등 생산성 하락으로 전년보다 감소 전망
 - 3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
 - 7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축이 줄어 전년 대비 29.7% 상승한 2,084원/kg, 8~9월에도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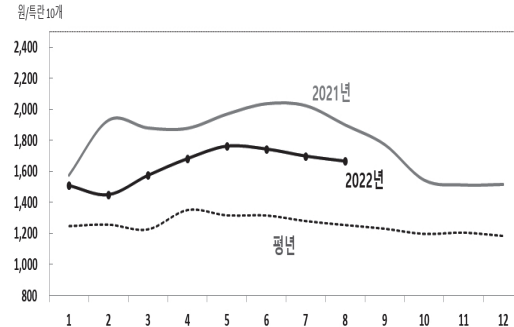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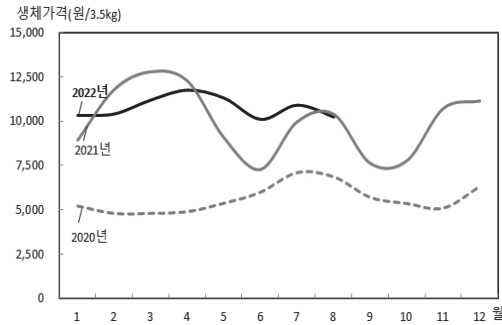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6~202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 2/4분기 동향
 -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7.3% 증가한 7,307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6.6%, 0.9% 증가한 5,168만 마리

- 6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2%, 8.6% 증가한 22만 톤. 그 중 산란초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 산란 중기는 13.0% 증가하였으나, 산란 말기는 7.4% 감소
- 2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28.7%, 21.7% 증가한 1,374만 마리,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92.3%, 42.4% 증가한 874만 마리
-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용계 입식 마릿수가 늘어 2분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
- 4~6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1.9% 하락한 1,729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8~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2분기 성계 도태 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식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 증가 전망
 - 계란 생산량 증가로 8~9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
(7월: 1,698원/특란 10개, 8~9월: 1,650~1,7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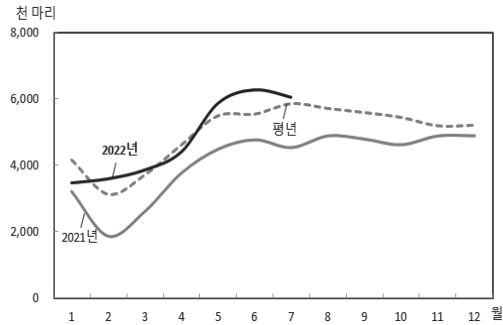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4분기 동향

- 6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9.7% 증가한 976만 4천 마리, 오리 종별로 종오리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58만 6천 마리이었으나, 육용오리는 전년 대비 32.5% 증가한 917만 8천 마리
- 2분기 도압 마릿수는 HPAI가 발생하였던 2021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1,657만 4천 마리, 2분기 오리 산지 가격은 도압 마릿수가 증가하였으나, 냉동비축물량 급감에 따른 총공급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15.7% 상승한 11,055원/생체 3.5kg

• 3/4분기 전망

- 7~9월 국내 오리 사육마릿수는 육성계군 종오리 증가 및 경제주령 연장 등으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8~9월 오리 생체가격은 도압 마릿수가 증가하나, 냉동비축물 물량 감소로 전년보다 상승한 10,000원 내외로 전망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64	80.0
	4~5명 이하	37	11.2
	6명 이상	29	8.8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양지아(jigeumaa@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 19.7%, 300m² 초과 9.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80.0%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2년 2/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92(5점 척도)로 전년 동기(2.38)대비 상승하였고, 전 분기(2.55) 대비 또한 증가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21년 2/4분기	2022년 1/4분기	2022년 2/4분기
2.38	2.55	2.92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4~6월) 매출은 전년 동기와 전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매출 증감률이 5% 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음식업 매출 동향(5점 척도 기준)

전년 동기 (21년 2/4분기)	전분기 (22년 1/4분기)
3.09	3.09

- 2022년 3/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2년 2/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100으로 나타나 전 분기와 매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22년 2/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5% 감소하였고,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감자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하였고, 전 분기 대비 0.2% 증가하였음.

곡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0.5	0.1	-3.7	0.2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3/4분기 감자, 쌀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3/4분기) 대비 3.4%,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3.4	1.3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22년 2/4분기 엽근채소류, 양념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남.
 - 엽근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배추김치와 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에 비해 0.5~1.9% 증가함.

- 양념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마늘과 고춧가루를 제외한 품목이 전년 동기에 비해 0.3~6.8% 감소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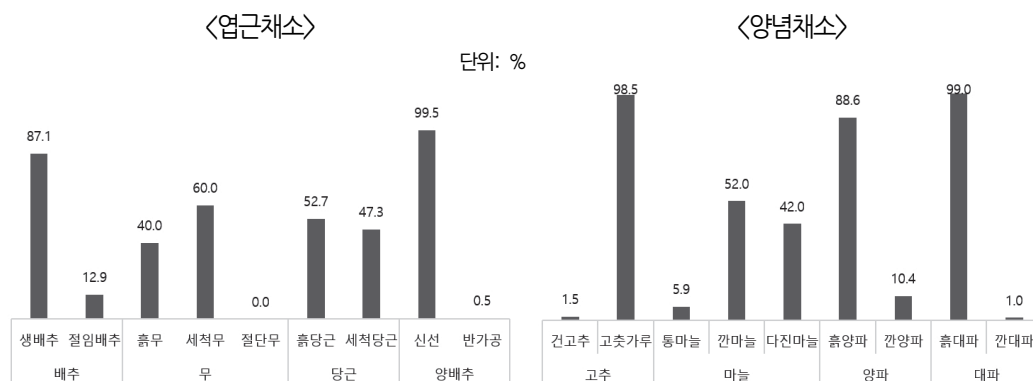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0.5	건고추	-6.8
배추김치	-0.5	고춧가루	0.3
무	-1.6	마늘	1.0
당근	1.6	양파	-0.3
양배추	1.9	대파	-1.7
소계	0.0	소계	-0.3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양배추(99.5%), 대파(99.0%), 고추(98.5%), 생배추(87.1%), 홍양파(88.6%)이며, 무,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73.1%), 깐양파(49.2%), 고춧가루(4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대파, 무, 배추는 전체 구매의 98.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내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중국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69.0%)'가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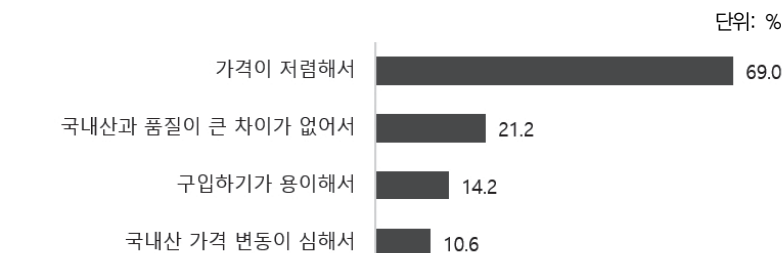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1년 2/4분기		2022년 2/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 채소	무	99.6	0.4	99.5	0.5
	배추	98.2	1.8	99.4	0.6
	배추김치	30.7	69.3	26.9	73.1
	당근	57.4	42.6	64.1	35.9
	양배추	88.3	11.7	89.0	11.0
양념 채소	건고추	83.3	16.7	58.3	41.7
	고춧가루	51.8	48.2	51.8	48.2
	통마늘	85.3	14.7	93.8	6.3
	깐마늘	58.5	41.5	60.8	39.2
	다진마늘	57.8	42.2	59.2	40.8
	훈양파	88.3	11.7	87.6	12.4
	깐양파	42.0	58.0	50.8	49.2
	대파	99.6	0.4	99.8	0.2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채소류 구입한 이유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2년 2/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6.3%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63.7%로 완제품의 구입 비율이 더 높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21.2%이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6.2%로 나타남.
- 중국산 김치 사용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98.0%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은 1.3%로 나타남.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으로 '각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50.0%)', '안 함(50.0%)'의 순으로 나타남.

배추김치 구입 유형별 비율

단위: %

직접 제조	완제품 구입
36.3	63.7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

단위: %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	안 함
50.0	5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3/4분기 엽근채소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3/4분기)에 비해 5.5% 증가하고, 양념채소는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3.7~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념채소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건고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3.1~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6.7	건고추	-6.8
배추김치	3.7	고춧가루	4.3
무	4.7	마늘	4.5
당근	8.7	양파	3.1
양배추	7.2	대파	3.4
소계	5.5	소계	3.4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22년 2/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7.3%, 3.2%,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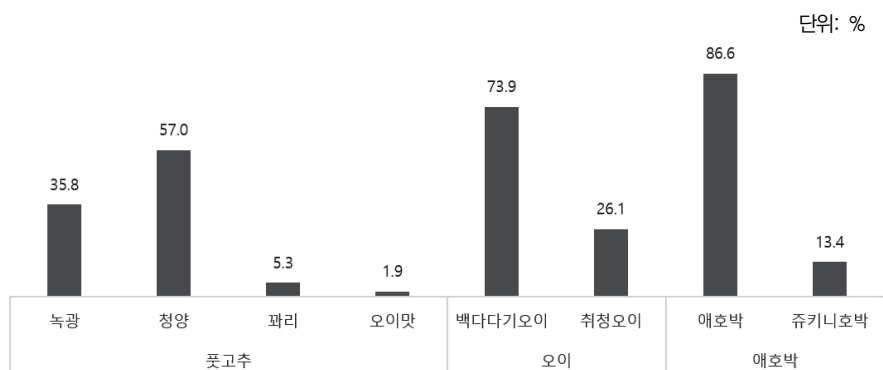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3.2	1.1	7.3	3.2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5.8%), 파리고추(5.3%), 오이맛(1.9%) 순으로 구입함.
 - 오이는 취청오이(26.1%)보다는 백다다기오이(73.9%)를, 호박은 주키니(13.4%)보다는 애호박(86.6%)을 주로 구입함.

과채류 품목별 구입 품종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3/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2년 3/4분기)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2.1%, 7.9%,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7.9	5.5	12.1	7.8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류

- 2022년 2/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 계란, 쇠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0.9%, 0.6% 증가하였으며,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2.5%, 1.8%, 1.5% 감소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0.6	-1.5	-1.8	-2.5	0.9	0.5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4.1%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국내산 구입 비중은 0.7%p 감소하고, 미국산 구입 비중은 1.4%p 증가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4.4%로 전년 동기 대비 2.6%p 감소하였으며, 그 외 뉴질랜드산과 캐나다는 각각 2.3%p, 0.6%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4.0%, 10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1년 2/4분기					2022년 2/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8.8		74.9		16.4	8.1		74.1		17.8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7.0	10.8	5.8	13.0	1.7	64.4	10.8	6.4	12.0	4.0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84.2	7.5	7.3		1.0	84.0	7.3	7.6		1.1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100.0		0.0			100.0		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3/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3/4분기)에 비해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계란, 돼지고기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9%, 2.6%, 1.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2.5%,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3.9	1.3	-0.8	-2.5	2.6	2.4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22년 1/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4.7%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21.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3.4%)’,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4.7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21.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3.4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2.8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7.1
단가가 저렴해서	0.3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34.2%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21.5%)’,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4.5%)’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4.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1.5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4.5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9.1
없음	0.9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5.5%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수박이 2.1%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37.5%로 가장 높았음.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수박	2.1	참외	1.5
사과	1.8	오렌지	0.6
파인애플	1.8	바나나	0.3
방울토마토	1.8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3.9%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37.5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37.5
국내산의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25.0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7 요약 및 시사점

- 2022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21년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채류, 축산물은 각각 3.2%, 0.5% 증가하였으며, 양념채소는 0.3% 감소함.
- 2022년 3/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과채류, 엽근채소, 양념채소, 축산물은 각각 7.8%, 5.5%, 3.4%,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간양파, 고춧가루 순으로 높음. 수입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69.0%)'가 가장 높게 응답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쇠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0.7%p 감소한 8.1%로 나타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4.7%)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포 내 전처리할 인력 부족(21.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3.4%)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 업체의 34.2%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1.5%),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4.5%)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5.5%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수박, 사과, 파인애플, 방울토마토 순으로 나타남.



특별주제

- ① 쌀 소비 실태와 소비량 전망
- ② 2022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쌀 소비 실태와 소비량 전망¹⁾

김종진*

1. 배경

- 2000년대 이후 쌀 산업은 연평균 약 30만 톤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쌀값 급등락이 빈번히 발생하여 쌀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쌀 산업의 공급과잉 구조는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이 근본 원인임.
 - 1980년대 식량용 쌀 소비량은 559만 톤(연평균 0.1% 감소), 1990년대 537만 톤(연평균 1.2% 감소), 2000년대 509만 톤(연평균 2.1% 감소), 2010년대 461만 톤(연평균 1.8% 감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80년대 연평균 1% 감소, 1990년대 연평균 2.4% 감소, 2000년대 연평균 2.5% 감소, 2010년대 연평균 2.3% 감소함.
 - 1인당 소비량 감소를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상쇄하여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에 비해 식량용 소비량 감소율이 소폭 작게 계산됨.
 - 반면, 쌀 생산량은 1990년대까지 작황에 의한 변동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2.0%의 감소세를 보였음.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주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쌀 시장 유통 구조 분석 및 소비 실태에 관한 연구”(2022. 01.)의 일부를 기반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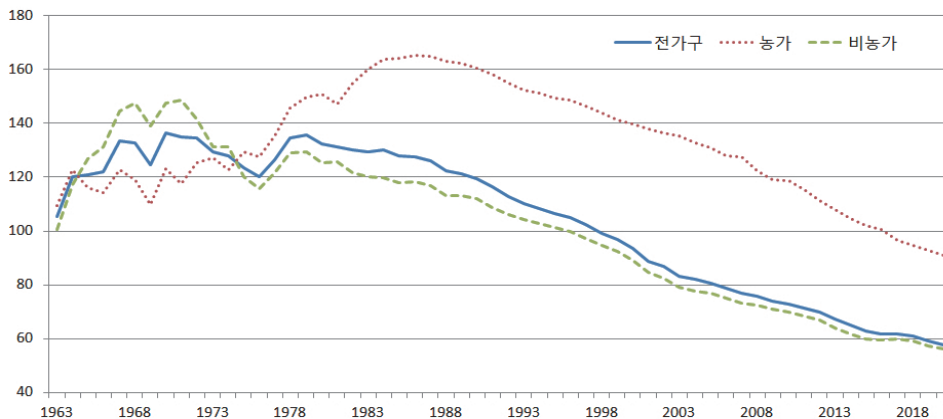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jkim@krei.re.kr)

- 쌀 산업정책 설계에는 이러한 소비량과 생산량의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쌀 소비량 전망치가 필요함.
 - 쌀 생산량 조정은 식량안보, 농가소득 등의 우리나라 농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타목적으로 전용된 농지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움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쌀 소비량은 소득증가, 먹거리 다양화 등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제까지의 쌀 소비 활성화 정책수행에도 감소세가 지속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
 - 따라서 향후 쌀 산업정책은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쌀 소비량 전망이 중요함.
- 본고는 중장기 쌀 정책 수립의 중요 기초자료인 쌀 소비량 전망치를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출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쌀 소비량 추이 및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분석을 선행하여 수행하였음.

2. 소비량 추이 및 소비행태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2021곡연도 기준)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쌀 소비량 감소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이는 가운데 2000년대는 2.5%, 2010년대는 2.3% 감소율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농가는 비농가에 비해 약 40% 정도 1인당 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음.
- 2015년 이후의 쌀 소비량 감소는 연평균 1.7%로 완화되는 모습이나 이는 양곡 소비량 조사의 표본이 재설정된 것에 기인할 가능성 존재함.
 - 통계청은 양곡소비량조사 표본을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부터 2인 이상 가구와 쌀 소비성향이 상이할 수 있는 1인 가구를 가구 구성비에 따라 표본에 포함하여 조사함.

1인당 쌀 소비량(kg/년) 추이



자료: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자료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당 쌀 소비량이 큰 것으로 분석됨.
 - 1인 가구 1인당 쌀 소비량(2016~2020년 평균)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농가 5.5%, 비농가 8.4%, 전체 6.5%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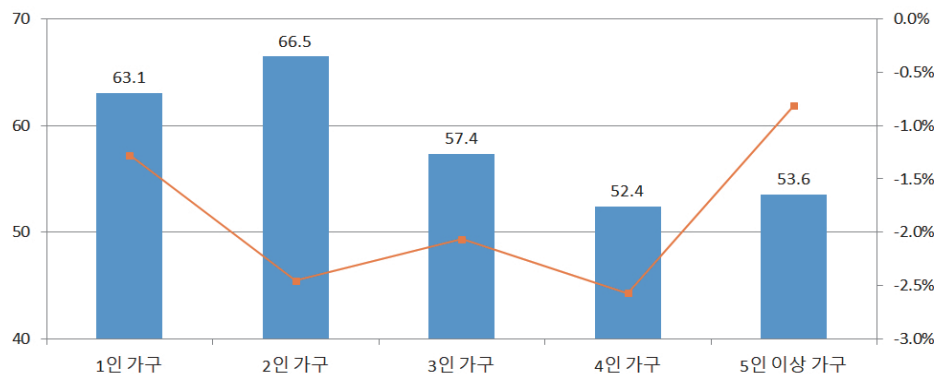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비교

구 분	양곡연도	전체 가구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전체	농가	비농가	전체	농가	비농가	전체	농가	비농가
소비량 (kg)	2015				62.9	102.1	60.0			
	2016	61.9	100.5	59.6	61.2	98.5	58.7	63.7	109.3	61.9
	2017	61.8	96.6	59.8	60.5	95.5	58.1	65.2	102	63.8
	2018	61.0	94.6	59.2	60.1	93.7	58	63.3	98.4	62.1
	2019	59.2	92.8	57.4	57.7	92.3	55.6	62.6	94.7	61.5
	2020	57.7	90.8	56.0	56.5	90.4	54.4	60.5	92.4	59.4
연평균 증감률 (%)	2016				-2.7	-3.5	-2.2			
	2017	-0.2	-3.9	0.3	-1.1	-3.0	-1.0	2.4	-6.7	3.1
	2018	-1.3	-2.1	-1.0	-0.7	-1.9	-0.2	-2.9	-3.5	-2.7
	2019	-3.0	-1.9	-3.0	-4.0	-1.5	-4.1	-1.1	-3.8	-1.0
	2020	-2.5	-2.2	-2.4	-2.1	-2.1	-2.2	-3.4	-2.4	-3.4
	'15년 이후				-2.1	-2.4	-1.9			

주: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 가구원 수별 1인당 쌀 소비량은 2인 가구가 가장 크고 이후 1인 가구, 3인 가구 순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1인당 쌀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2인 가구의 쌀 소비량이 66.5kg으로 가장 크고 연평균 감소율도 2.5%로 크게 나타남.
 - 반면, 1인 가구 소비량은 63.1kg으로 2인 가구에 비해 소폭 작으며 연평균 감소율도 1.3% 작게 계산됨.

가구원 수별 1인당 쌀 소비량(kg/년)



주: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임. 2016~2020년 평균임.
자료: 저자 작성

- 1인 가구를 고려하여 2015년 이전의 1인당 쌀 소비량을 재추정한 결과 최근 5년 쌀 소비량 감소율이 2.1%로 최근 10년 감소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쌀 소비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당 쌀 소비량이 6.5%(2016년부터 2020년 평균, 비교적 안정적으로 차이가 유지됨을 확인) 크다는 점과 해당 연도의 1인 가구 비율을 이용하여 1인 가구를 포함한 쌀 소비량을 재추정함.²⁾
 - 표본 대상의 확대(1인 가구 포함)로 인한 효과가 최근 5년 쌀 소비량 증감률을 $-0.4\%p(-1.7\% \rightarrow -2.1\%)$ 감소시킴.

2) 즉,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2015년 이전의 1인당 소비량은 통계청 발표치(A, 1인 가구 미포함)와 1인 가구 비중(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1인당 소비량 = $A \cdot (1 - \alpha) + A \cdot (1 + 0.065) \cdot \alp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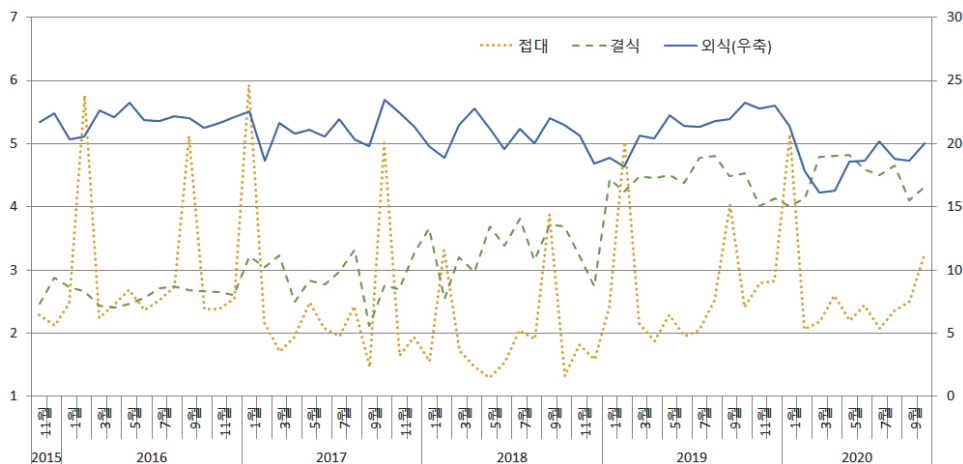
1인 가구를 고려한 1인당 쌀 소비량(kg) 재추정

양곡년도	1인 가구 비율 (%)	1인당 쌀 소비량		
		통계청(A)	1인 가구 포함(B)	차이 (B/A-1,%)
2000년	15.5	93.6	94.6	1.0
2005년	19.9	80.7	81.7	1.3
2010년	23.9	72.8	73.9	1.6
2015년	27.2	62.9	64.0	1.8
2016년	27.8	61.9	61.9	0.0
2017년	28.5	61.8	61.8	0.0
2018년	29.2	61.0	61.0	0.0
2019년	29.8	59.2	59.2	0.0
2020년	30.3	57.7	57.7	0.0
연평균 증감률(%)	전체	3.4	-2.4	
	최근 10년	2.4	-2.3	
	최근 5년	2.1	-1.7	

주: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장례가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 2020년 기준 1인당 외식, 접대, 결식 횟수는 월 기준으로 각각 19.4, 2.7, 4.4회/월로 조사되었으며 가구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는 64.8회/월로 조사됨.
 - 2020년 상반기 외식 횟수의 급감과 결식 횟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됨.
 - 다만, 통계청 쌀 소비량은 외식과 가정식의 1회 소비량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는 결식 횟수 증가분만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함. 결식 횟수는 2019년 연말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체 추이를 고려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증가가 전체 추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곡소비량 조사에서 쌀 소비량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1인당 접대, 외식, 결식 화수



주: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 가구 내 식사와 외식의 1회 쌀 소비량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사 형태별 쌀 소비량(2016~2020년 평균)을 도출하면 자가구 내 쌀 소비량이 73.3%, 접대가 2.9%, 외식이 23.8%인 것으로 계산됨.
 - 1인당 쌀 소비량(2016~2020년 평균)은 가구 내가 44.2kg, 접대 1.8kg, 외식 14.3kg인 것으로 계산됨.
 -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사 장소별 1인당 쌀 소비량은 최근 5년(2015~2019년) 기준으로 가정 소비량이 전체(57.3kg)의 64.1%인 34.6kg, 학교·직장 8.7kg(15.2%), 음식점소 9.7kg(17.0%), 기타 2.2kg(3.9%)으로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함. 최근 5년 쌀 소비량 감소율도 가정이 -4.3%인데 비해 가정 외(학교·직장 0.6%, 음식점소 1.5%, 기타 -20.1)는 -2.1%로 가정 내 쌀 소비량 감소율이 훨씬 크게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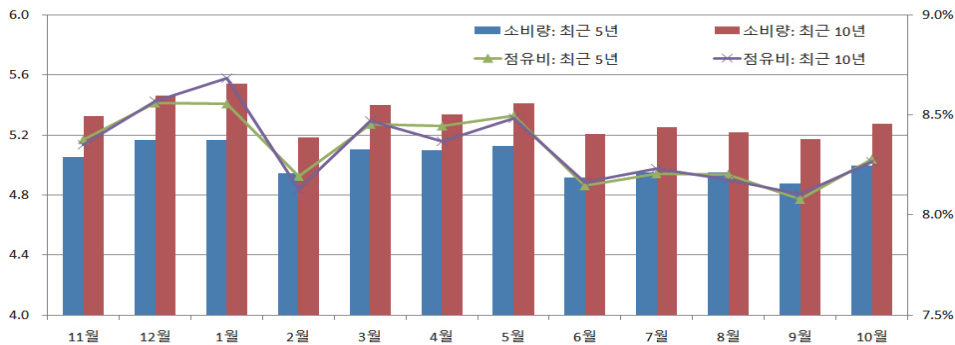
식사 형태별 쌀 소비량(kg/년) 추정

양곡연도	자가구 내	접대	외식	전체
2016년	44.6	2.0	15.3	61.9
2017년	45.1	1.9	14.8	61.8
2018년	45.0	1.4	14.6	61.0
2019년	43.4	1.7	14.1	59.2
2020년	43.0	1.8	12.9	57.7
평균	44.2 (73.3)	1.8 (2.9)	14.3 (23.8)	60.3 (100.0)

주: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임.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월별 1인당 쌀 소비량은 11, 1, 2월이 많고 12, 7, 8, 9월이 적은 계절성을 보임.³⁾
 - 이러한 쌀 소비량 계절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월별 1인당 쌀 소비량(kg/해당 월)



주: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3) 7, 8, 9월 쌀 소비량 감소는 하절기에 쌀이 면류나 육류로 대체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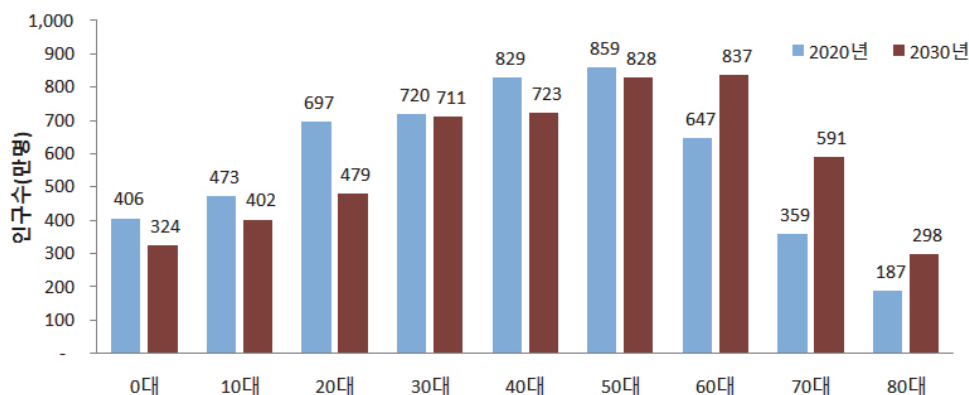
3. 쌀 소비량 전망

- 본 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타국 사례, 품목간 대체 관계 등의 관점에서 쌀 소비량을 전망하고 도출된 전망치를 비교·분석함.
 - 각 관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이 적용됨.
 -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을 전망하였음.

3.1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망

- 2021년 약 5,182만 명으로 추산된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8년에 약 5,194만 명으로 최대에 이르고,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2030년 인구는 약 5,192만 명으로 전망됨(통계청, 인구조로 보는 대한민국).
 -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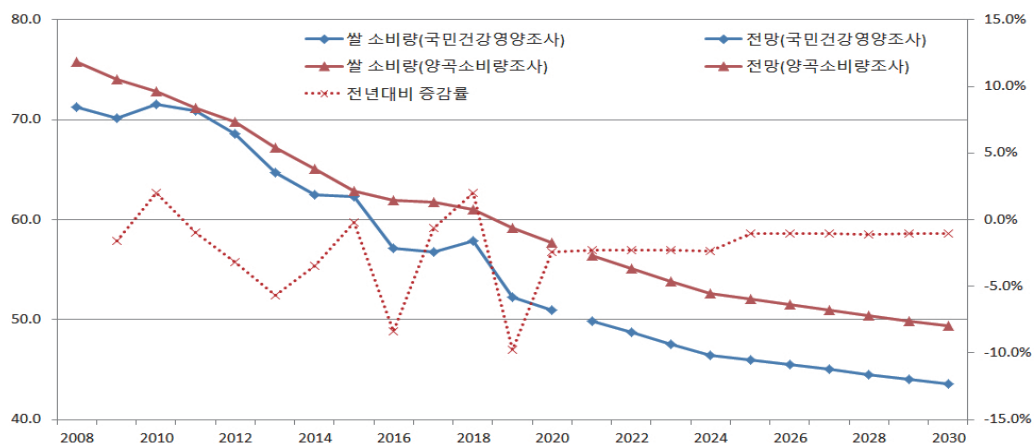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의 '인구조로 보는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각 연도. (<https://kosis.kr/>, 2021년 12월 20일 검색)
 자료: 저자 작성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망치 도출은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함.
 -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 마이크로 자료는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분석하기 적절하지 않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쌀 소비량(섭취량)은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절대적인 소비량은 적게 집계됨.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직접 섭취한 양만을 집계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소비량 전망치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
- 인구구조 변화 및 연령대별 1인당 쌀 소비량 추이를 반영한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6%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기준으로 2019년 52.3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이 2030년 43.6kg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사의 2020년 1인당 쌀 소비량 57.7kg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 변화율을 적용하여 도출한 2030년 1인당 쌀 소비량은 49.3kg으로 계산됨.

1인당 쌀 소비량(kg/년) 전망: 인구 구조변화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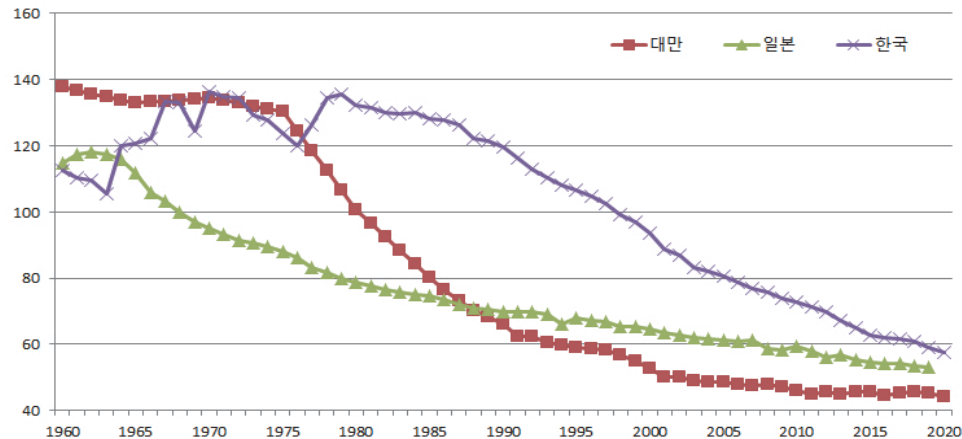


주: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장례가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3.2 타국 사례를 반영한 전망

-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쌀 소비량 추세 및 소득수준과 쌀 소비량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을 전망함.
 - 1960년대 초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소비량 수준을 보였으나 일본은 1960년대 초, 대만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감소추세가 시작됨.
 -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일본과 대만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는 2000년대가 지나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쌀 소비량도 조만간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국가별 1인당 쌀 소비량(kg/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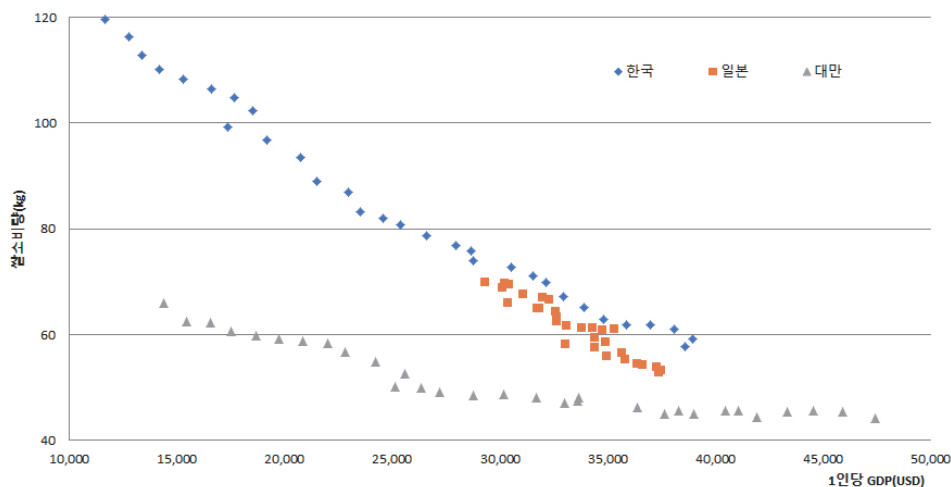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각 연도, 일본농림축산 식품부, 대만 농림부

- 한국, 일본, 대만의 쌀 소비량과 소득수준 간에는 선형의 관계를 보여 이를 이용한 쌀 소비량의 예측 가능성을 시사함.

- 한국과 일본의 소득증가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율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나 대만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소득증가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 속도가 느린 모습을 보임.
- 이는 국가별로 식습관 등의 차이로 소득증가가 쌀 소비량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회귀분석을 통한 실질 GDP가 쌀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소득이 쌀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소득변수와 국가별 소득변수(소득과 국가 더미변수의 교차항)를 모두 사용하여 국가별 한계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함.

1인당 실질 GDP와 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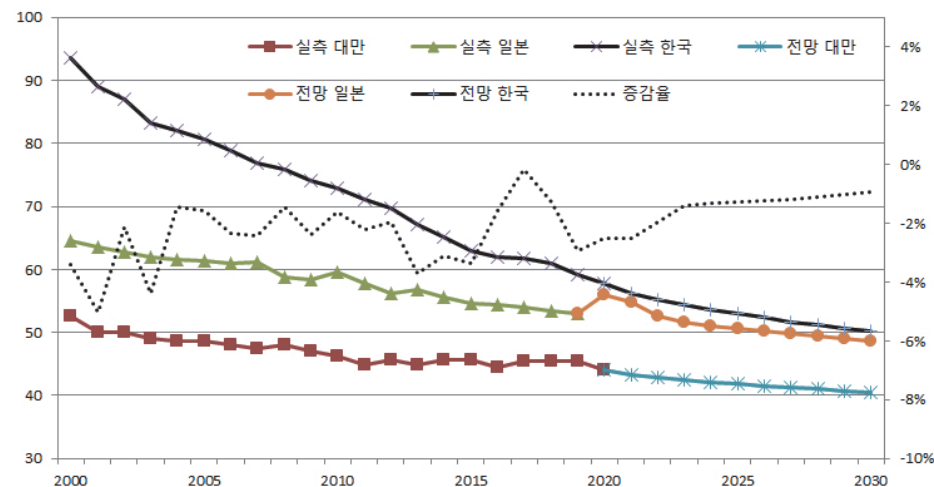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각 연도. 일본농림축산 식품부, 대만 농림부, 글로벌인사이트 실질GDP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 1인당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결과와 실질 GDP 전망치(글로벌인사이트(IHS Markit) 실질GDP 전망치 사용)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을 전망한 결과 2020년 57.7kg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하여 2030년에는 50.1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소득 감소로 202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었음.

1인당 쌀 소비량(kg/년) 전망: 타국 사례 정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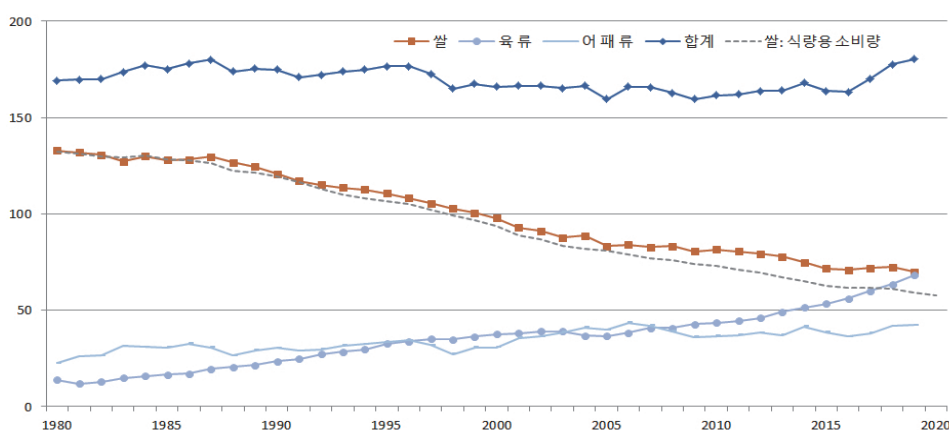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3 품목간 대체 관계를 반영한 전망

- 본 절에서는 식품수급표(Food Balance sheet)의 1인당 순식품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쌀 순공급량을 전망하였음.
- 식품수급표의 쌀 1인당 순공급량은 통계청의 쌀 소비량 조사 결과와 비슷한 감소 추이를 보이는 데 비해 육류 및 어패류의 1인당 순 공급량은 증가하여 쌀이 육류와 어패류로 대체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 3품목의 1인당 순공급량 합계는 1980년대부터 170kg 내외로 일정 수준이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이들 3품목 간에 중장기적인 대체 관계가 성립함을 시사함.

- 반면, 쌀과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밀가루 1인당 순공급량은 1980년대부터 30kg내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음.⁴⁾
- 1인당 쌀 순공급량은 가공용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식량용으로 사용된 1인당 쌀 소비량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음.

1인당 식용 순공급량(kg/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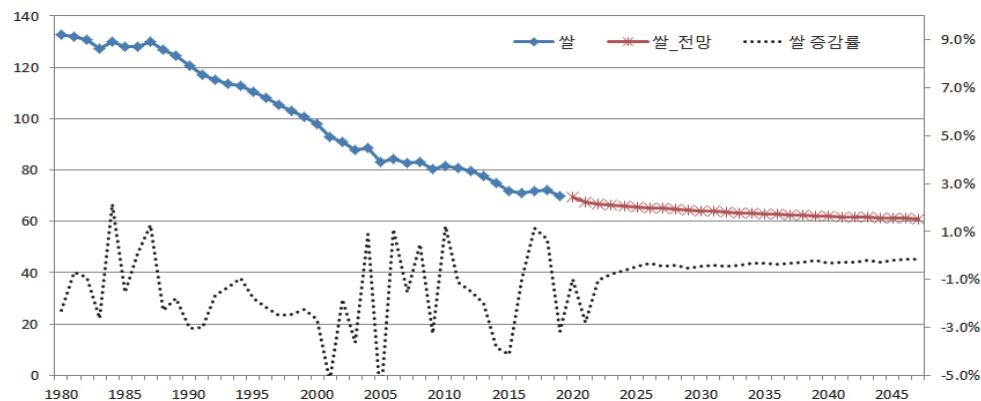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품목별 1인당 순공급량 분석 모형은 특정 품목의 변화량을 품목별 가격, 소득 수준, 인구 및 사회적 특성 변수(외생변수)로 설명하는 회귀분석 모형과 함께 품목간 대체 가능성 및 장기적인 대체 관계를 고려하는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및 VECM 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단, 쌀을 비롯한 육류와 어패류의 가격이 2021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전망치를 도출함.

4) 밀가루 1인당 순공급량은 1980년 29.4kg, 2019년 31.6kg이었음.

- 회귀분석 모형 추정 결과(OLS 결과 이용)를 이용한 1인당 쌀 공급량 전망 결과 2019년 70.0kg에서 2030년 64.1kg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0%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어패류는 대체재, 육류는 보완재로 분석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양의 효과로 추정되었으나 소득과 1인 가구 비중은 음의 효과로 추정됨.
 - 가격의 내생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육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대체재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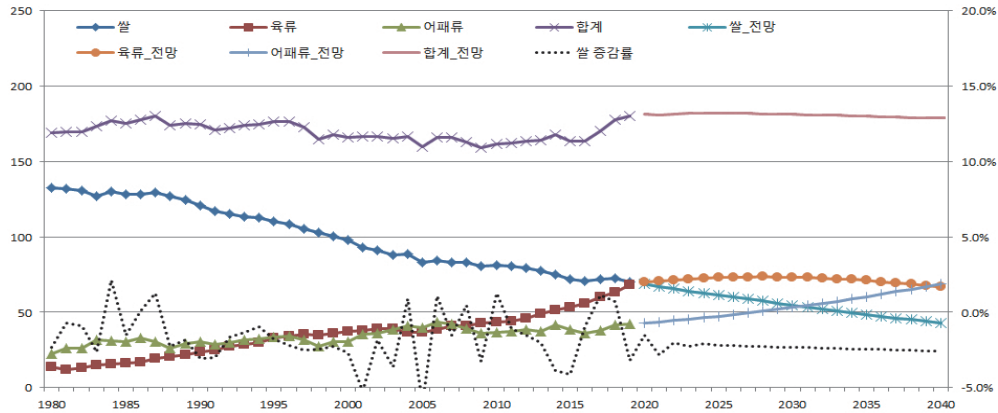
1인당 쌀 소비량(kg/년) 전망: OLS 모형 이용



자료: 저자 작성.

- VAR 모형을 이용한 1인당 쌀 공급량 전망 결과 2019년 70.0kg에서 2030년 54.8kg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2.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쌀은 육류 및 어패류와 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음.
 - 어패류 가격상승에 따라 육류 1인당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어패류는 육류의 유의미한 대체재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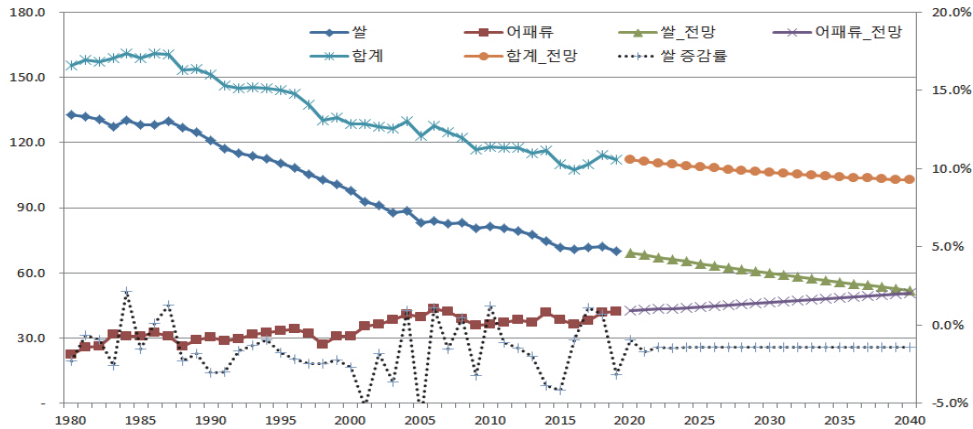
1인당 쌀 소비량(kg/년) 전망: VAR 모형 이용



자료: 저자 작성.

- VECM 모형을 이용한 1인당 쌀 공급량 전망 결과 2019년 70.0kg에서 2030년 59.9kg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4%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쌀과 어패류의 장기적인 균형관계(공적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기적인 영향 보다 장기적인 균형 관계로의 회복을 통해 쌀과 어패류 1인당 공급량 추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됨.
 - 장기적인 균형 관계로의 수렴은 7.5%/년의 속도로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기적인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1인당 쌀 소비량(kg/년) 전망: VECM 모형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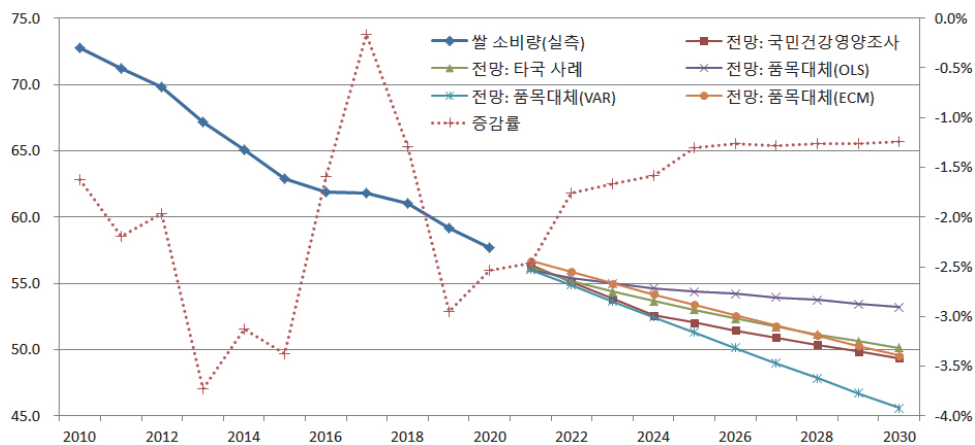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이상의 1인당 쌀 순공급량 전망치를 이용하여 1인당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는 2030년의 소비량이 45.6kg~53.2kg 범위에 있을 것으로 계산됨.
 - 식품수급표의 1인당 쌀 순공급량 대비 양곡소비량 조사의 1인당 식량용 소비량 비율의 5년 평균값을 위에서 도출한 1인당 쌀 순공급량에 곱하여 도출함.
 - 회귀분석 모형 이용 2030년 1인당 식량용 쌀 소비량 전망치는 53.2kg, VECM 전망치는 49.6kg, VAR 모형 전망치는 45.6kg으로 계산됨.

3.4 쌀 소비량 전망 종합

- 향후 10년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은 2010년대의 연평균 감소율인 2.3%보다 다소 완화된 1.5% 수준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자료와 전망모형을 적용하여 도출한 2030년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전망치는 45.6~53.2(평균 49.6)kg 수준이었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kg) 전망: 종합



자료: 저자 작성

4. 요약 및 시사점

-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량 감축은 자칫 쌀 생산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공급과잉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손실 또한 크므로 소비량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적정 생산 기반 유지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구조적 공급과잉은 재고누증으로 인한 재정 소요액 증가에 더하여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점을 파생시킴.
 -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급균형을 이루는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산업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급격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쌀 소비량이 향후 지속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2015년 이후의 쌀 소비량 감소 폭은 연평균 1.7%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이 재설정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양곡소비량 조사의 표본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최근 5년 쌀 소비량 감소율이 2.1%로 최근 10년 감소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쌀 소비량 감소 추이는 최근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전망치는 2030년 45.6~53.2(평균 49.6)kg으로 도출되어 2020년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2010년대 감소율(2.3%)보다 다소 완화된 1.5% 정도로 전망되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상의 결과는 쌀 소비량 감소는 다소 완화되나 지속된다는 것으로 현재의 생산량이 추이가 지속된다면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2021년 벼 재배면적은 73만 2천ha로 오히려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1.4~1.7% 감소(쌀 관측월보 6월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하반기 농업부문 수정 전망

서동주*, 이형용**, 김재휘***, 김준호****

1. 전망모형과 거시지표 가정

- (전망모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08년 개발한 이후 지속 운영하고 있는 KREI-K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용
 - KREI-KASMO는 국내 농업부문에 한정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
 - 국내 농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으며, 가격은 수급균형에 의해 결정
 - 재배업 65개, 축산업 9개 등 총 74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품목 기준으로 122개 품목을 포함
 - 감자는 봄, 여름, 가을로 배추와 무는 봄, 여름, 가을,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파는 대파, 쪽파, 낙농품은 우유,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의 8개로 세분
- (거시지표) 2022~31년 농업 부문 전망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 전망기관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2021.12.09)를 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tjsu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lhy2813@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kjhid92@krei.re.kr)

- 실질 GDP, 소비자 물가(CPI)의 2022년과 2023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경제 전망보고서 2022.5」을 이용하였고, 중장기 전망치는 Global Insight Inc. 전망치를 준용하여 각각 연평균 2.0%, 1.8%, 1.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원/달러 환율은 Global Insight Inc. 전망치를 준용하여 2022년 1,160원/달러, 2031년 1,147원/달러로 가정
- 18/19년산부터 26/27년산 국제 곡물 가격은 미국 미주리 농식품정책연구소 (FAPRI)에서 발표한 중장기 전망치를 준용하였으며, 그 이후 전망치는 이동 절사평균을 통해 계산
- (수입제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기 발효된 FTA를 상품 양허(관세율 및 TRQ)에 집중하여 반영
 - 쌀은 2015년에 관세화를 이행하였으나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량을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된 수입쌀은 소량이며 수급에 미치는 수준의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 물량은 없을 것으로 가정
 -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 조치는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총량 통계) 농업 부문 총량인 생산액, 부가가치, 소득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각기 다르며, 생산액은 농림축산식품부,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공식 통계로 사용
-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산출 방법과 유사하게 품목별 생산액과 중간재비(경상재비, 사료비 등)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산출
- 식물성 고기와 배양육으로 구성된 대체육 시장은 국제 육류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체육에 대한 선호도와 유전공학기술 발전 속도의 불확실성이 커 농업 부문 전망 및 수정 전망에서 미고려

2. 농업 생산 전망

2.1. 재배업 생산 전망

- (2022년 전망)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53.1만 ha로 전망
 -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7% 증가한 68.4a가 될 전망이며, 경지이용률은 0.2%p 증가한 107.6%가 될 전망
- (중장기 전망) 건물 건축과 같은 농지 전용 수요의 증가로 경지면적의 감소가 지속되어 2026년 148.4만 ha, 2031년 145.4만 ha로 전망
 - 농가인구 감소폭이 경지면적 감소폭보다 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2026년 70.8a, 2031년 73.7a로 연평균 0.8% 확대될 전망
 - 2026년 경지이용률은 2022년 107.6%에서 소폭 증가한 108.2%로 전망되며,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031년에는 106.8%가 될 전망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과 전망

구 분	2001	2020	2021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경지면적(천 ha)	1,876	1,565	1,547	1,531	1,484	1,454	-1.0	-1.2	-1.0	-0.6
농가인구당 경지면적(a)	47.7	67.6	68.0	68.4	70.8	73.7	1.9	0.5	0.7	0.8
경작가능면적(천 ha)	1,889	1,517	1,504	1,488	1,442	1,413	-1.1	-0.9	-1.0	-0.6
재배면적(천 ha)	2,089	1,624	1,614	1,601	1,561	1,509	-1.3	-0.6	-0.8	-0.7
경지이용률(%)	110.6	107.0	107.3	107.6	108.2	106.8	-0.2%p	0.3%p	0.2%p	-0.1%p

주: 경지이용률은 (재배면적 / 경작가능면적 × 100)으로 산출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22년 전망)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60.1만 ha로 전망하며, 대부분 품목의 재배면적이 감소할 전망
 - 쌀, 콩 등을 포함하는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89.2만 ha로 전망

- 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25.7만 ha로 전망
- 근채류 재배면적은 2021년 무와 당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배 의향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9% 감소한 2.2만 ha로 전망
- 2021년 고추와 양파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22년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조미채소 재배면적은 4.8% 감소한 9.5만 ha로 전망
- 엽채류 재배면적의 경우 2021년 시금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4.5만 ha로 전망하며, 과채류 재배면적은 전년대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 과수 재배면적은 대부분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1% 증가할 전망
- 특용·약용작물 재배면적은 0.7% 감소하나, 기타작물은 0.5% 증가할 전망
- (중장기 전망) 기타작물을 제외한 부류별 재배면적이 대부분 감소할 전망
 - 전체 재배면적은 연평균 0.7% 감소하여 2031년 150.9만 ha로 전망
 -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약용작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각각 1.0%, 0.6%, 0.5%, 0.2% 감소하나 기타작물은 연평균 0.3% 증가할 전망

부류별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

단위: 천 ha

구 분	2001	2020	2021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전체 재배면적	2,089	1,624	1,614	1,601	1,561	1,509	-1.3	-0.6	-0.8	-0.7
식량작물	1,334	906	906	892	859	819	-2.0	0.0	-1.6	-1.0
채소	366	260	260	257	251	245	-1.8	-0.2	-1.2	-0.6
엽채류	74	46	45	45	44	43	-2.4	-2.3	0.1	-0.5
근채류	43	23	23	22	23	22	-3.3	2.5	-3.9	-0.4
조미채소	156	94	100	95	91	86	-2.6	5.9	-4.8	-1.5
과채류	64	41	41	41	40	40	-2.4	0.5	-0.0	-0.2
과수	167	157	153	156	152	145	-0.3	-2.6	2.1	-0.5
특용·약용작물	94	78	75	75	72	74	-1.0	-3.3	-0.7	-0.2
기타작물	128	223	221	222	225	226	3.0	-1.2	0.5	0.3
사료작물	23	112	118	119	121	123	8.7	5.5	0.7	0.4

주: 통계청의 농산물 부류별 재배면적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함.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2. 축산업 생산 전망

- (2022년 전망)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190.6백만 마리로 전망
 - (우제류) 소와 돼지 사육마릿수는 2021년 가임암소가 증가하고, 모든 마릿수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3.7%, 0.5% 증가하나, 젖소는 4.6% 감소하여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5.4백만 마리로 전망
 - (가금류) 육계 사육마릿수는 2020년 말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전년 대비 1.9% 감소하나, 오리와 산란계의 경우 피해 복구로 인해 각각 31.4%, 7.3% 증가하여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3.0% 증가한 175.2백만 마리 수준으로 전망
- (중장기 전망)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젖소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사육마릿수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우제류) 젖소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1.2% 감소하는 반면, 소와 돼지는 각각 0.3%, 0.5% 증가하여, 2031년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4% 증가한 15.9백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가금류) 오리 사육마릿수는 202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지만 다시 회복하여 2031년 사육마릿수는 8.5백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육계·산란계는 각각 연평균 0.4%, 1.2% 증가하여 2031년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0.8% 증가한 184.5백만 마리로 전망

사육마릿수 동향과 전망

단위: 백만 마릿수

구 분	2001	2020	2021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총 사육마릿수	118.1	194.8	185.3	190.6	193.9	200.4	2.7	-4.8	2.9	0.8
우제류	10.5	15.0	15.2	15.4	15.5	15.9	1.9	1.6	1.1	0.4
소	1.4	3.4	3.6	3.7	3.6	3.7	4.7	5.7	3.7	0.3
젖소	0.55	0.41	0.40	0.38	0.36	0.36	-1.5	-2.2	-4.6	-1.2
돼지	8.5	11.2	11.2	11.3	11.5	11.8	1.4	0.5	0.5	0.5
가금류	107.7	179.8	170.1	175.2	178.5	184.5	2.7	-5.4	3.0	0.8
육계	51.2	97.6	95.8	94.0	96.0	99.7	3.5	-1.8	-1.9	0.4
오리	6.7	8.7	6.4	8.4	8.2	8.5	1.4	-25.9	31.4	2.8
산란계	49.8	73.5	67.8	72.8	74.3	76.3	2.1	-7.8	7.3	1.2

주: 가축통계 공표를 위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한육우, 젖소는 2017년 3/4분기부터 이력제 자료로 대체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

- 2000년대부터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대표적인 7대 곡물, 6대 과일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와 수입과일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
 - (곡물) 쌀 등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1.3% 감소
 - (채소) 채소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1.0% 감소
 - (과일) 6대 과일 소비량은 2001년 1인당 47.7kg에서 2020년 32.3kg으로 연평균 2.0% 감소, 오렌지와 열대과일 소비량은 동기간 3.5% 증가
 - (육류)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32.4kg에서 2020년 52.5kg으로 연평균 2.6% 증가
- (전망) 곡물, 채소,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육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
 - (곡물) 쌀을 포함한 곡물류 소비가 연평균 0.6% 감소하여 2031년 1인당 소비량은 121.9kg으로 전망
 - (채소) 2022년 채소의 소비는 장마, 태풍,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2% 감소하여 2031년 1인당 소비량은 111.3kg으로 전망
 - (과일) 2022년 6대 과일 소비는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2.1% 증가, 수입과일 소비량은 해외 주산지의 저조한 작황으로 수입량이 줄어 5.9% 감소한 것으로 추정. 중장기적으로는 6대 과일은 연평균 0.8% 감소하며, 오렌지 및 열대과일은 연평균 0.6% 감소하여 전체 과일 소비량은 연평균 0.7% 감소한 45.5kg으로 전망
 - (육류) 3대 육류 소비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2031년 1인당 소비량은 60.8kg에 이를 전망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¹⁾

단위: kg/인

구 분	2001	2020	2021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¹⁾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7대 곡물 ²⁾	168.8	131.8	130.0	128.1	125.3	121.9	-1.3	-1.3	-1.5	-0.6
5대 채소 ³⁾	134.8	111.7	113.2	104.9	108.8	111.3	-1.0	1.4	-7.4	-0.2
6대 과일 ⁴⁾	47.7	32.3	34.8	35.6	33.7	32.2	-2.0	8.0	2.1	-0.8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7.1	13.8	14.1	13.2	13.6	13.3	3.5	2.3	-5.9	-0.6
3대 육류 ⁵⁾	32.4	52.5	53.8	55.2	56.2	60.8	2.6	2.5	2.6	1.2

주 1) 7대 곡물, 5대 채소, 6대 과일 및 오렌지·열대과일 1인당 소비량은 유통연도 기준, 3대 육류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1인당 소비량은 총 국내 공급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 변화량)으로부터 도출된 1인당 공급량을 의미함.

2) 7대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3) 5대 채소: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4) 6대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 3대 육류: 소, 돼지, 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 농업 총량 전망

4.1. 농업생산액 전망

- (2022년 전망) 농업 총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4조 3,150억 원,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29조 6,190억 원, 축잡업은 3.0% 증가한 24조 6,960억 원으로 전망
 - (재배업)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 가격 하락으로 곡물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9조 6,420억 원 전망
 - 채소류 생산액은 마늘, 양파, 건고추 등의 주요 노지채소 생산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 3,610억 원으로 전망
 - 과실류는 배, 포도 등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4조 8,730억 원으로 전망
 - (축잡업) 한우의 생산량 증가로 한육우 가격이 하락하지만, 생산비 증가에 따른 가금육 가격 상승으로 2022년 축잡업 전체 생산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한 24조 6,960억 원 전망
 - 계란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액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2조 4,260억 원 전망
 - 우유 생산액은 젖소 마리당 원유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2.7% 감소
- (중장기 전망) 농업 총생산액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0.9% 증가하고, 재배업과 축잡업 생산액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각각 0.4%, 1.5%씩 증가할 전망
 - (재배업) 곡물류 생산액이 연평균 -1.6% 감소하지만, 채소류와 과실류 등의 생산액이 증가하여 2031년 생산액은 연평균 0.4% 증가한 30조 8,560억 원으로 전망
 - (축잡업) 국내 육류 소비 증가 영향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31년 생산액은 27조 7,810억 원에 달할 전망

농업 부문 생산액(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 십억 원

구 분	2001	2020	2021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¹⁾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농업 총생산액	32,383	50,135	53,556	54,315	53,650	58,636	2.3	6.8	1.4	0.9
재배업	24,071	29,769	29,575	29,619	29,735	30,856	1.1	-0.7	0.2	0.4
곡물류	11,745	10,481	10,045	9,642	9,102	8,583	-0.6	-4.2	-4.0	-1.6
채소류	7,209	11,244	11,157	11,361	11,475	12,337	2.4	-0.8	1.8	1.0
과실류	2,077	4,567	4,955	4,873	5,215	5,664	4.2	8.5	-1.7	1.3
특용·약용	660	1,378	1,495	1,599	1,642	1,794	4.0	8.5	6.9	1.8
축산업	8,312	20,366	23,981	24,696	23,916	27,781	4.8	17.7	3.0	1.5
한육우	1,700	5,992	7,088	6,780	5,989	8,289	6.9	18.3	-4.3	1.6
돼지	2,692	7,178	8,076	8,171	8,217	9,052	5.3	12.5	1.2	1.1
닭	863	2,027	2,530	3,356	3,466	4,006	4.6	24.8	32.6	4.7
계란	828	1,634	2,492	2,426	2,535	2,763	3.6	52.5	-2.7	1.0
우유	1,429	2,196	2,168	2,109	2,109	2,122	2.3	-1.3	-2.7	-0.2
오리	382	813	1,116	1,343	1,118	1,036	4.1	37.2	20.4	-0.7
기타	418	526	511	512	482	513	1.2	-2.9	0.3	0.0

주 1) 2022년 1~2분기의 통계치를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2. 농업 부가가치 전망

- (2022년 전망) 농업 부가가치는 중간재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3조 2,610억 원으로 전망
 - (재배업) 생산액이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중간재비가 상승하여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7조 6,850억 원으로 전망
 - (축산업) 사료비 등의 중간재비 상승 폭이 커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9.6% 감소한 5조 5,760억 원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업 부문 부가가치는 연평균 0.6% 감소하여 2031년에는 25조 1,650억 원 수준으로 전망
 - (재배업) 중간재비 부담으로 재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축산업) 축산업 생산액은 증가하나 가축과 사료 등의 중간재비 증가 폭이 더 커 부가가치는 연평균 1.1% 감소할 전망
- 2022년 농업 부문 부가가치율은 전년 대비 7.0%p 감소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증가 폭이 생산액보다 작아 부가가치율은 연평균 0.7%p 감소 전망
 - 재배업과 축산업 부가가치율은 각각 연평균 0.5%p, 0.7%p씩 감소하여 2031년은 각각 61.5%, 22.3%로 전망

농업 부가가치¹⁾ 동향과 전망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1	2020	2021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농업	20,526 (63.4) ²⁾	28,417 (56.7)	26,709 (49.9)	23,261 (42.8)	23,488 (43.8)	25,165 (42.9)	1.7 -0.4%p	-6.0 -6.8%p	-12.9 -7.0%p	-0.6 -0.7%p
재배업	17,994 (74.8)	23,536 (79.1)	19,770 (66.8)	17,685 (59.7)	18,409 (61.9)	18,983 (61.5)	1.4 0.2%p	-16.0 -12.2%p	-10.5 -7.1%p	-0.4 -0.5%p
축산업	2,533 (30.5)	4,881 (24.0)	6,939 (28.9)	5,576 (22.6)	5,079 (21.2)	6,182 (22.3)	3.5 -0.3%p	42.2 5.0%p	-19.6 -6.4%p	-1.1 -0.7%p

주 1)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이며, 부대서비스는 제외됨.

2) ()는 부가가치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 농업교역조건 전망

5.1. 농업구입가격 전망

- 2022년 국제 유가 상승과 국제곡물 가격 및 원자재비 상승 영향으로, 영농광열비와 비료비를 비롯한 농업용품 구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5.3% 상승할 전망
 - (투입재) 투입재비는 전년 대비 21.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경상재) 원유가격 상승으로 영농광열비와 영농자재비가 전년보다 각각 31.4%, 27.7% 상승하고,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또한 각각 9.0%, 67.1%, 7.9% 상승하여, 경상비는 전년 대비 28.4%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노임·임차) 노임과 임차료는 전년보다 각각 4.5%,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사료·가축구입비) 2022년 사료가격은 국제곡물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3.4% 상승하고, 가축구입비는 축산물 산지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14.9% 하락할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영향으로 연평균 1.8% 상승한 137.0으로 전망
 - 투입재 가격은 연평균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사료 가격은 국제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평균 1.5% 상승할 전망
 - 노임, 임차료 각각 연평균 1.6%, 0.8% 상승하고 가축구입비는 연평균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

농업구입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100)

구 분	2001	2020	2021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²⁾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농업구입가격지수 ¹⁾	63.7	105.4	114.7	132.3	129.6	137.0	2.7	8.9	15.3	1.8
투입재	66.0	100.2	106.3	128.6	126.7	135.8	2.2	6.0	21.1	2.5
경상재	67.0	98.7	106.9	137.3	129.9	138.5	2.1	8.3	28.4	2.6
종자	69.3	115.9	116.1	126.5	137.6	148.8	2.7	0.2	9.0	2.5
비료	45.9	77.9	83.7	139.9	116.3	123.6	2.8	7.4	67.1	4.0
농약	69.4	118.9	120.8	130.4	115.6	119.1	2.9	1.6	7.9	-0.1
영농광열	67.9	87.1	108.6	142.7	152.6	164.6	1.3	24.7	31.4	4.2
영농자재	63.8	102.6	112.8	144.0	130.0	138.9	2.5	9.9	27.7	2.1
농기구	65.9	104.3	104.5	105.1	117.8	128.4	2.4	0.2	0.6	2.1
노임	50.7	124.2	135.3	141.4	152.3	159.2	4.8	8.9	4.5	1.6
임차료	75.2	112.4	114.5	114.6	119.0	124.3	2.1	1.9	0.1	0.8
사료	-	102.1	113.6	128.8	128.2	132.3		11.3	13.4	1.5
가축	-	129.6	144.9	123.3	114.1	131.6		11.8	-14.9	-1.0

주 1)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2) 2022년은 1~2분기의 통계치를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2.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망

- 202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청과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 상승할 전망
 - (곡물) 2021년산 쌀 가격의 하락으로 곡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보다 0.9% 낮은 136.9로 전망
 - (청과물) 과수는 2021년산 생산량 상승에 따른 2022년 상반기 가격 하락 영향이 커 전년 대비 0.8% 하락하나,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8% 상승한 146.3으로 전망
 - (축산물) 한우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1% 하락한 115.5로 전망

- (중장기) 203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평균 0.9% 상승한 140.3으로 전망
 - 곡물은 연평균 0.6% 하락하나, 청과물과 축산물은 각각 1.9%, 0.5% 상승하여 농축산물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할 전망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과 전망(2015=100)

구 분	2001	2020	2021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¹⁾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전체 농산물	76.5	117.0	128.7	130.3	129.2	140.3	2.3	10.0	1.2	0.9
곡물	100.2	127.5	138.1	136.9	133.6	130.5	1.3	8.3	-0.9	-0.6
청과물	71.4	133.6	141.0	146.3	154.2	170.9	3.4	5.5	3.8	1.9
채소	85.9	118.6	122.5	131.6	129.0	138.9	1.7	3.3	7.4	1.3
과수	53.1	158.5	171.9	170.5	195.1	222.5	5.9	8.5	-0.8	2.6
축산물	65.6	101.8	116.8	115.5	107.0	122.3	2.3	14.7	-1.1	0.5
기타축산물	64.8	102.2	117.5	122.5	122.9	128.8	2.4	15.0	4.3	0.9

주 1) 2022년은 1~2분기의 통계치를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5.3. 농업교역조건 전망

- 202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2% 상승하나, 농업구입가격지수가 전년대비 15.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교역조건지수는 12.2% 악화될 전망
- (중장기 전망)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연평균 상승률(1.8%)이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0.9%)보다 커 농업교역조건은 연평균 0.9% 수준 악화될 전망

농업교역조건(패리티지수) 동향과 전망(2015=100)

구 분	2001	2020	2021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22	2026	2031	20/01	21/20	22/21	31/21
농가판매가격지수(A)	76.5	117.0	128.7	130.3	129.2	140.3	2.3	10.0	1.2	0.9
농업구입가격지수 ¹⁾ (B)	63.7	105.4	114.7	132.3	129.6	137.0	2.7	8.9	15.3	1.8
농업교역조건지수 ²⁾ (A/B×100)	120.0	111.1	112.2	98.4	99.7	102.4	-0.4	1.0	-12.2	-0.9

주 1)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농업용품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만 고려함.

2) 농업교역조건지수는 농업구입가격지수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로 산출되는 농업부문 패리티지수임.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